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Maria Callas' Great Operas



8.111025

레온카발로 :
팔리아치 (1954년 녹음)

주제페 디 스테파노 te
마리아 칼라스 sop
티토 고펜 bar
플란도 파넬라이 bar
니콜라 폰티 te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
올리오 세라핀 cond.



8.111024

마스카니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1953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sop
주제페 디 스테파노 te
플란도 파넬라이 bar
안나 마리아 카날리 ms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
올리오 세라핀 cond.



8.111026-27(2CDs)

푸치니 :
나비부인 (1955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sop
니콜라이 겐다 te
루치아 다니엘리 ms
마리오 보리엘로 bar
레나토 에르폴라니 te
플라니오 클라바시 bass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cond.



8.111028-29(2CDs)

푸치니 :
이탈리아의 터키인
(1954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sop
니콜라 로시-레메니 bass
니콜라이 겐다 te
플란도 파넬라이 ms
피에로 데 팔마 te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
잔드레아 가바체니 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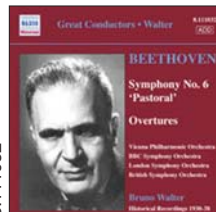
Great Russian Opera Recording



8.111078-80(3CDs)

글루카 :
차르에게 바친 생명
(이반 수사닌) (1947, 50년 녹음)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의 아버지 글루카의 대표작인 애국 오페라. 볼쇼이의 전설적인 베이스 막심 미하일로프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만나게 된다. 1-4막: 알렉산더 멜릭 파사예프가 지휘한 1947년 녹음. 에펠로그: 바실리 네볼린이 지휘한 1950년 녹음



8.111032

BEETHOVEN:
SYMPHONY NO. 6
'PASTORAL' OVERTURES

브루노 발터
빈 필, BBC 심포니, 런던 심포니
교향곡 6번 '전원' & 레오노레 3번 서곡 - 빈 필 (1936년 녹음)파렐로 서곡 - BBC 심포니 (1934년 녹음)코리올란 서곡 - 런던 심포니 (1938년 녹음)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 브리티시 심포니 (1938년 녹음)



8.111094

MOZART:
SERENADES NOS. 10 AND 13,
'EINE KLEINE NACHTMUSIK'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베를린 필하모닉 & 빈 필하모닉
글루크: 알제스테 서곡 - 베를린 필 (1942년 10월 녹음)모차르트: 세레나데 10번 '그랑 파르티타' K361 - 빈 필 (1947년 11-2월 녹음)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아 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K525번 필 (1949년 4월 녹음)



8.111101

GIGLI, BENIAMINO:
LONDON RECORDINGS (1946-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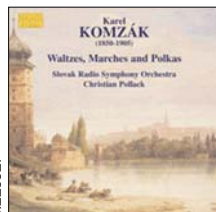
할레비: 유대어인 중 'Rachel, quand du seigneur', 수베르트: 아베마리아, 토스티: 이별, 그루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O Lola', 치다니니: 사랑의 향수, 마스네: 마농 중 'Je suis seul' & 베르테르 중 'Pourquoi me reveiller?'

Marco Polo & Naxos Jazz Legend & Naxos Nostalgia



8.225283

JOHANN STRAUSS I:
EDITION VOLUME 7
Slovak Sinfonietta Zilina
Ernst Marzenendor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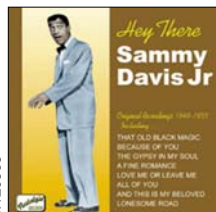
8.225327

KAREL KOMZAK I &
KAREL KOMZAK II:
WALTZES, MARCHES,
AND POLKAS, VOL. 2
Slovak Radio Symphony Orchestra
Christian Pollack, conductor



8.120809

DUKE ELLINGTON:
BLACK, BROWN AND BEIGE
(1943-1945)
Boy Meets Horn / Caravan
Carnegie Blues /



8.120833

SAMMY DAVIS JR.:
HEY THERE (1949-1955)
A Fine Romance / Azure /
Guys And Dolls / I Don't
Care Who Knows



5.110115

HANDEL:
WATER MUSIC
ROYAL FIREWORKS (DVD-AUDIO)
Aradia Ensemble
Kevin Mallon, conductor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February 2006

DVD Hot Issue

눈으로 확인하는 미켈란젤리의 예술세계

World Music

스코틀랜드의 국민 가수 진 레드파스

New Release

The Best of 레드 아미 코러스

Cover Story

20세기의 위대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20세기의 위대한 소프라노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살고>

마리아 칼라스



결정적인 경험이 되었다. 1947년에는 베로나의 <지오콘다>에 초청되었고, 그곳의 대부호였던 메네기니와 결혼했다. 그후 톨리오 세라핀에게 인정을 받아 베네치아의 페니체극장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의 이졸데 역으로 크게 성공했다.

1951년에는 스칼라 극장에서 <시칠리아의 저녁 종소리>의 엘레나 역으로 노래했다. 1952년 11월 코벤트 가든 극장에서의 <노르마>공연은 대성공을 거뒀고, 수장되어 있던 케루비니의 <메데아>는 그녀가 출연해서 생생하게 부활시켰다. 1956년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극장 창설 이래 최고의 출연료를 받는 가수가 되었지만 이때 메네기니와 파경에 이른다. 메네기니와 헤어진 후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사랑에 빠져 이른바 세기적 염문을 뿌리기도 했다. 1960년부터 61년까지 칼라스는 가수로서 무대에 서려고 하지 않고, 오나시스와 함께 화려한 상류층 생활을 즐긴다. 프랑코 제피렐리가 설득해서 그녀는 1964년부터 코벤트 가든에서의 <토스카>를 시작으로 다시 무대에 돌아온다. 당시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전성기의 그것이지 아니었지만, 공연은 연이어 대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점점 자신의 목소리에 한계를 느낀 그녀는 자신의 음악 생활의 종착점을 가깝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65년 6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칼라스는 1923년 12월 2일 미국 뉴욕에서 그리스 이주민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나이 14세 때였던 1937년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로 갔다. 그리스에서 아테네 국립 음악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음악원에서 만난 저명한 소프라노 엘비라 데 히달고(Elvira de Hidalgo)의 제자가 된 것은 그녀의 장래를 정하는 데

월 5일 코벤트 가든에서 '토스카' 역으로 로얄 갈라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은 그녀의 오페라 가수로서의 마지막 공연이 되었다. 은퇴한 후 칼라스는 1966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그리스 국적을 가짐으로써 메네기니와의 결혼사실을 지우고 오나시스와 결혼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1968년 케네디 미대통령의 미망인 재클린 케네디와 결혼했고, 칼라

스는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1971년과 72년, 칼라스는 뉴욕의 줄리아드 학교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고, 그녀의 옛 동료이자 만년의 각별한 관계의 친구였던 주세페 디 스테파노와 재회한다. 1973년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테파노가 칼라스를 설득해 전 세계 투어를 함께 할 것을 권유했고, 이들의 공연은 74년까지 지속되었다. 1974년 11월 일본 사포로 공연을 끝으로 스테파노와의 공연은 끝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공연이 되었다. 이 즈음에 친구이며 연인이었던 디 스테파노와의 아리송한 관계도 마무리된다. 1975년엔 오나시스가 죽었고, 못 이룬 화려한 사랑을 먼저 보내고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거의 은둔생활을 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그녀도 1977년 9월 16일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리아 칼라스는 그녀의 본명이 아니다. 그녀의

본명은 Cecilia Sophia Anna Kalogeropoulou, 특히 메네기니와 결혼한 후 1949년과 1959년 사이에는 마리아 메네기니 칼라스(Maria Meneghini Callas)로 더 알려져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녀의 독특한 전율적인 절창을 들으며 20세기의 청중이나 레코드 애호가들은 술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최고 장기 레퍼토리 가운데「세비야의 이발사」중에 나오는 유명한 카바티나 '방금 들린 그 목소리(Una voce poco fa)'가 있다. 그녀의 음반이나 영상물은 표지만 보고 있어도 그녀의 음성이 금방 들려오는 것 같다. 20세기를 살아온 음악애호가들은 그녀의 노래에 그렇게 중독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낙소스 히스토리컬을 통해 발매된 칼라스의 음반들



**DONIZETTI :
LUCIA DI LAMMERMOOR**
Naxos 8.110131-32(2CDs)



PUCCINI : TOSCA
Naxos 8.110256-57(2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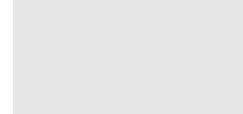
VERDI : LA TRAVIATA
Naxos 8.110300-01(2CDs)



**PONCHIELLI :
LA GIOCONDA**
Naxos 8.110302-04(3CDs)



BELLINI : NORMA
Naxos 8.110325-27(3CDs)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Naxos 8.111024



LEONCAVALLO : PAGLIACCI
Naxos 8.111025



PUCCINI : MADAMA BUTTERFLY
Naxos 8.111026(2CDs)



ROSSINI : IL TURCO IN ITALIA
Naxos 8.111028(2CDs)



MARIA CALLAS : A PORTRAIT
Naxos 8.111082



BELLINI : I PURITANI
Naxos 8.110259-60(2CDs)

–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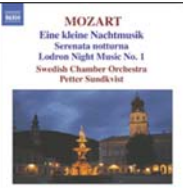


Naxos 8.557764

HANDEL: Water Music / Music for the Royal Fireworks

Aradia Ensemble / Kevin Mallon, conductor

현재 낙소스의 바로크 레퍼토리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케빈 말론과 아라디아 앙상블이 헨델의 가장 유명한 두 걸작에 도전하였다. 시대악기 특유의 섬세한 소노리티를 통해 춤곡 모음곡의 경쾌함과 화려함을 한껏 강조한 연주로 특히 왕궁의 불꽃놀이하는 오리지널 필사본에 포함된 트라베르소 플루트 파트를 적용한 최초 레코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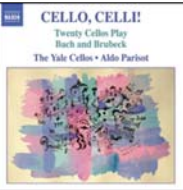


Naxos 8.557023

MOZART: Serenades No. 6 and 13, "Eine kleine Nachtmusik" / Divertimento No. 10

Swedish Chamber Orchestra / Petter Sundkvist, conductor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두 세레나데 작품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와 '세레나타 노투르나', 그리고 잘츠부르크의 로드론 백작부인을 위해 작곡하였던 디베르티멘토 K247를 함께 담았다. 스웨덴 체임버의 경쾌 발랄한 연주가 쾌활하고 친근한 모차르트의 모습을 산뜻하게 그려내었다.



Naxos 8.557816

CELLO, CELLO!: The Music of Bach and Brubeck

Yale Cellos / Aldo Parisot, conductor

20대의 첼로 앙상블이 연주하는 바흐와 브루벡, 탄탄한 합주력과 적절한 편곡으로 첼로 앙상블의 예술성을 진일보시켰던 예일 첼로스가 낙소스를 통해 신보를 발매하였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협주곡과 데이빗 브루벡의 재즈넘버라는 상극의 레퍼토리를 통해 첼로의 그윽한 중저음이 한결 매력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Naxos 8.559250

BROUWER, M: Aurolucent Circles / Mandala / Remembrances

Evelyn Glennie, percussion / Kevin Price, trombone /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Orchestra / Gerard Schwarz, conductor

청각장애를 극복한 타악기의 마술사, 이블린 글레니의 최신보. Aurolucent Circle은 클리블랜드 음악원의 석좌교수 마가렛 브루위가 이블린 글레니를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타악기의 독특한 음향을 통해 우주의 신비로움을 묘사하였다. 관현악곡 Mandala는 티벳 미술로 부터의 영감을 음악화한 독특한 작품.



Naxos 8.557754

BRITISH TUBA CONCERTOS (Gregson, Steptoe, Vaughan Williams, Gollard)

James Gourlay, tuba / Royal Ballet Sinfonia / Gavin Sutherland, cond

오케스트라의 저음을 묵묵히 담당하던 튜바가 무대 전면에 화려하게 나섰다. 네 명의 20세기 영국 작곡가들이 남긴 튜바 협주곡들을 통해 이 듣직한 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BBC 심포니를 거쳐 현재 취리히 오페라 수석을 맡고 있는 제임스 굴리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503

STRAVINSKY: Pulcinella / The Fairy's Kiss

Mark Beesley, bass / Robin Leggate, te / Diana Montague, ms / London Symphony Orchestra / Philharmonia Orchestra / Robert Craft, cond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시대를 대표하는 두 작품을 함께 담았다. 풀치넬라가 페르글레지, 갈로 등의 18세기 이탈리아 작품들을 차용한 작품인 반면, 요정의 입맞춤은 작곡가 자신의 악상을 고전적인 서법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작곡가의 애제자였던 로버트 크래프트가 영국을 대표하는 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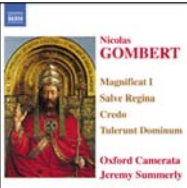


Naxos 8.559432

GREAT SONGS OF THE YIDDISH STAGE, VOL. 2

Bruce Adler, tenor / Amy Goldstein, soprano / David Krakauer, clarinet / Simon Spiro, tenor / Vienna Chamber Orchestra / Elli Jaffe, conductor

1938년 미국 히트 퍼레이드 1위를 차지했던 Bay Mir Bistu Sheyn을 비롯하여 미국 유대인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주옥같은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 수록하였다. 현재 최고의 칸토르로 인정받고 있는 시몬 스피로를 비롯하여 정상급 유대전통가수들이 참여하였다.



Naxos 8.557732

GOMBERT: Magnificat / Salve Regina / Credo / Tulerunt Dominum

Oxford Camerata / Jeremy Summerly, conductor

조스캥의 제자로 추정되는 공베르는 르네상스 폴리포니음악을 꽃피운 플랑드르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8성부를 위한 마그티피카트를 비롯하여 작곡가의 대표적인 종교합창곡들을 이 음반에 담았다. 제레미 섬머리가 이끄는 옥스포드 카메라타의 최신 녹음으로 폴리포니 애호가들께 적극 추천한다.



Naxos 8.557727

TCHAIKOVSKY, B.: Pf Concerto / Cl Concerto / Signs of the Zodiac

Anton Prischepa, cl / Olga Solovieva, pf / Russian Academy of Music Chamber Orchestra / Timur Mynbaev, cond

보리스 차이코프스키는 냉전시대 작곡가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서구의 근대적인 조성체계를 접목시켰던 인물이었다. 미니멀 음악을 닮은 피아노협주곡, 기교지향적인 클라리넷협주곡, 독특한 소재를 다룬 칸타타인 황도 12곡 등 작곡가의 독특한 음악세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입문서다.



Naxos 8.557482

ORDONEZ: Symphonies

Toronto Camerata / Kevin Mallon, conductor

낙소스 18세기 교향곡 시리즈의 최신보. 18세기 후반부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음악가인 카를 오르도네즈는 고전적인 양식미에 충실하면서도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을 담은 우수한 교향곡들을 다수 남겼다. 낙소스 고음악의 새로운 중추인 케빈 말론이 잊혀진 작곡가의 신선한 매력을 아름답게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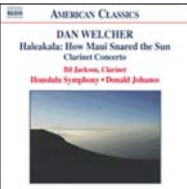


Naxos 8.557825

MANCINI: The Music of Henry Mancini (arranged by Richard Hayman)

Richard Hayman Orchestra / Richard Hayman, conductor

4번의 아카데미상과 20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던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대부 헨리 맨시니. 피터 건, 문 리버, 핑크 팬더, 아기 코끼리의 걸음 등등 그의 주옥같은 선율들을 중후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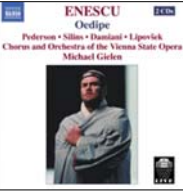


Naxos 8.559287

WELCHER: Haleakala / Prairie Light / Clarinet Concerto

Richard Chamberlain, narrator / Bill Jackson, clarinet / Honolulu Symphony Orchestra / Donald Johanos, conductor

하와이의 전설을 노래한 이국적인 교향시 Haleakala는 웰치가 호놀룰루 심포니의 상주 작곡가로 재직할 당시에 완성한 곡으로 고대 하와이의 노래들과 폴리네시아 전통에 음계를 도입한 독특한 작품이다. 스윙과 블루스의 이디엄을 차용한 클라리넷협주곡은 스윙의 황제 베니 굿맨을 기리는 작품.



Naxos 8.660163-64(2CDs)

ENESCU: Oedipe (2CD)

Ruxandra Donose, sop / Marijana Lipovsek, ms / Monte Pederson, br / Vienna Boys Choir / Vienna State Opera Chorus & Orchestra / Michael Gielen, cond

미카엘 길렌과 빈 슈타츠오퍼, 낙소스에 모습을 드러내다!!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기초한 <오이디페>는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에네스쿠의 유일한 오페라이다. 1997년 빈 슈타츠오퍼 실행으로 2001년 사망한 비운의미국 바리톤 몬트 페더슨의 유작앨범이기도 하다. 거장 길렌의 지휘 아래 마리아 리포브섹을 비롯한 정상급 가수들의 열연을 담았다.



Naxos 8.557976

Perfect Spring Wedding

비발디:봄 1악장 / 텔레만:트리오 소나타 / 글록:정령의 춤 / 바흐:양떼는 편히 풀을 뜯고 / 비발디:플루트협주곡 / 파헬벨:캐논 / 바그너:결혼행진곡 / 클라크:봉헌 / 슈베르트:아베마리아 / 비제:가르멘 간주곡 / 슈만:로망스 / 들리브:꽃의 이중창 / 멘델스존:결혼행진곡 / 바흐:브란덴부르크협주곡 4번 / 텔레만:트럼펫협주곡 / 하세:알레그로, 헨델:할렐루야



Naxos 8.557979

Perfect Summer Wedding

포레:자장가 / 모차르트:엘비라 마디간 / 맥도웰:들장미 / 드뷔시:아라베스크 1번 / 비발디:류트협주곡 / 파헬벨:캐논 / 바그너:결혼행진곡 / 클라크:봉헌 / 슈베르트:아베마리아 / 엘가:사랑의 인사 / 바흐:주와 함께 / 마스네:명상곡 / 멘델스존:결혼행진곡 / 헨델:수상음악 / 헨델:시바여왕의 도착 / 하세:알레그로 / 헨델:할렐루야 / 비발디:여름 1악장



Naxos 8.557978

Perfect Autumn Wedding

비발디:가을 1악장 /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 가브리엘:소나타 / 샤르팡티에:테 데움 / 파헬벨:캐논 / 바그너:결혼행진곡 / 클라크:봉헌 / 슈베르트:아베마리아 / 헨델:라르고 / 포레:시실리아느 / 모차르트:라우다테 도미눔 / 멘델스존:결혼행진곡 / 비발디:두 대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 헨델:빛나는 세라핌, 헨델:할렐루야



Naxos 8.557977

Perfect Winter Wedding

토렐레:안단테 / 모차르트:로망스 / 바젠자일:하프협주곡 / 비발디:세상에 참 평화 없iera / 바흐: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있어 / 파헬벨:캐논 / 바그너:결혼행진곡 / 클라크:봉헌 / 슈베르트:아베마리아 / 모차르트:아베 베룸 코르푸스 / 멘델스존:노래의 날개 위에 / 비발디:겨울 2악장 / 생상:백조 / 멘델스존:결혼행진곡 / 퍼셀:트럼펫 튜 / 가브리엘:간존 / 헨델:할렐루야



Naxos 8.557975

Perfect Wedding

바흐:G선상의 아리아 / 보케리니:미뉴엣 / 리스트:사랑의 꿈 / 바흐:인간 소망의 기쁨 / 바흐:양떼는 편히 풀을 뜯고 / 파헬벨:캐논 / 바그너:결혼행진곡 / 클라크:봉헌 / 샤르팡티에:테 데움 / 슈베르트:아베마리아 / 바흐:주와 함께 / 들리브:꽃의 이중창 / 하세:아다지오 / 멘델스존:결혼행진곡 / 텔레만:트럼펫협주곡 / 모차르트:엑슬라테 유피라테 / 가브리엘:간존 / 헨델:할렐루야



Naxos 8.570029

Perfect Romance

리스트:한숨 / 엘가:사랑의 인사 / 푸치니:그대의 찬송 / 드뷔시:아마빛 머리의 소녀 / 들리브:꽃의 이중창 / 사티:집노페디 1번 / 쇼팽:야상곡 2번 / 보로딘:노토루노 / 푸치니:공주는 잠 못 이루고 / 푸치니:오 나의 아버지 / 라흐마니노프:파가니니변주곡 / 라벨: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 리스트:사랑의 꿈 / 드뷔시:아라베스크 1번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6번 2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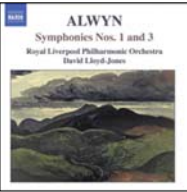


Naxos 6.110115

HANDEL: Water Music / Music for the Royal Fireworks (Hybrid-SACD)

Aradia Ensemble / Kevin Mallon, conductor

현재 낙소스의 바로크 레퍼토리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케빈 말론과 아라디아 앙상블이 헨델의 가장 유명한 두 걸작에 도전하였다. 시대악기 특유의 섬세한 소노리티를 통해 춤곡 모음곡의 경쾌함과 화려함을 한껏 강조한 연주로 특히 왕궁의 불꽃놀이하는 오리지널 필사본에 포함된 트라베르소 플루트 파트를 적용한 최초 레코딩이다.



Naxos 8.557648

ALWYN: Symphonies Nos. 1 and 3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Orchestra / David Lloyd-Jones, cond.

윌리엄 올윈은 5편의 교향곡, 각종 협주곡, 오페라, 그리고 200편이 넘는 필름 스코어를 작곡하였던 20세기 영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그는 로맨틱한 경향의 복고적인 작품들을 선호하였다. 교향곡 1번은 전통적인 4악장 구조 속에 활발하고도 외향적인 캐릭터를 담은 작품. 교향곡 3번은 야상곡 스타일의 느린 2악장과 홀스트의 행성 중 화성을 연상시키는 전쟁 풍의 마지막 악장이 흥미롭다.



Naxos 8.557649

ALWYN: Symphony No. 4 / Sinfonietta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 David Lloyd-Jones, cond.

20세기의 대표적인 영국 작곡가인 올윈은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현대음악의 난해한 서법을 지양하고 전통적이고 감성적인 작품을 추구했던 작곡가였다. 교향곡 4번은 그의 다섯 교향곡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다이내믹한 작품이다. 반면 현악앙상블을 위한 신포니에타는 간결한 구성의 보다 내면적인 성향의 작품. 그가 존경했던 베르크의 오페라 <루루>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이다.



Naxos 8.557453

CLEMENTI: Piano Sonatas, Op. 50/1, Op. 34/2 and Op. 41

Tanya Bannister, piano

2003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와 2005년 뉴 올리안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탄냐 바니스터의 낙소스 데뷔음반. 고전과 낭만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피아노음악 작곡가인 클레멘티의 피아노 소나타 3곡을 수록하였다. 연주자로서의 경험에 기반을 둔 기교적인 화려함과 이탈리아인 특유의 유려한 선율감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다.



Naxos 8.557497

PLEYEL: String Quartets, Op. 2, Nos. 4-6

Enso Quartet

하이든의 제자가 들려주는 고전 실내악의 묘미하이든의 제자였던 프라이엘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둘 정도로 당대에 명망높았던 작곡가였다. 그의 현악사중주는 소년 모차르트를 감탄케했을 정도였는데, 하이든의 작품에 비견될만큼 해맑고 싱그러운 매력이 음반 전체에 걸쳐 가득하다. 미국의 젊은 기대주인 엔조 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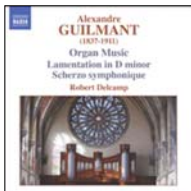


Naxos 8.557598

PAGANINI: Guitar Music

Marco Tamayo, guitar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추앙받는 파가니니. 그러나 그가 동시에 뛰어난 기타리스트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유명한 오페라 선율들에 기초한 흥미로운 작품인 'Ghiribizzi',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그랜드 소나타 등 로맨틱 기타음악의 진면목을 이 음반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명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치오 중의 세 곡을 기타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Naxos 8.557614

GUILMANT: Organ Works

Robert Delcamp, organ

길망은 비도르, 비에르네 등과 더불어 19세기 프랑스 악파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인물이다. 작곡가와 오르가니스트는 물론 음악전문지의 편집장, 음악학자, 악보출판자로도 활약하면서 근대 프랑스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헨델의 메시아 중의 '머리를 들어라' 에 기초한 행진곡을 비롯한 수록곡들은 관현악곡에 버금가는 화려한 사운드를 지향했던 작곡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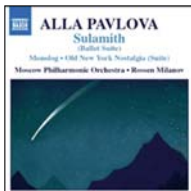


Naxos 8.557664

MOZART: Violin Sonatas, Vol. 5 (No. 35 & No. 36)

Benjamin Loeb, piano / Takako Nishizaki, violin

낙소스 사장 클라우스 헤이만의 부인인 타카코 니시자키는 1967년 필만에 이어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한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다. Vol.5는 그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시리즈를 완결하는 음반. 소나타 16번은 '바이올린 초심자를 위한 소나타' 라는 부제에 어울리는 간결하고 소박한 작품인 반면, 15번은 풍부한 서정성과 더불어 기교적인 완성도를 요구하는 화려한 작품.



Naxos 8.557674

PAVLOVA: Monolog / The Old New York Nostalgia / Sulamith (Suite)

Yaroslav Krasnikov, vn / Moscow Philharmonic / Rossen Milanov, cond.

앞서 발매된 두 장의 교향곡 음반들로 국내 현대음악 애호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러시아 출신의 여류작곡가 알라 파블로바의 새로운 음반. 색다른 소재를 다룬 관현악곡 세 편을 수록하였다. 'Old New York Noastalgia' 에 삽입된 '쌍둥이를 위한 자장가' 는 바로 9/11 테러의 희생자들에게 헌정된 작품. 술라미트 발레 모음곡은 솔로몬왕과 시녀 술라미트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발레에서 발췌한 작품.



Naxos 8.557688

FUKAI: Chantes de Java / Creation / 4 Mouvements Parodiques

Russian Philharmonic Orchestra / Dmitry Yablonsky, conductor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주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시로 후카이(1907-59)는 프랑스의 음악 전통에 크게 영향 받았다. 파야, 스트라빈스키, 라벨, 루셀의 음악을 변용한 '관현악을 위한 4개의 패러디' 는 이러한 작곡가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일본색이 농후한 선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자바의 노래' 는 볼레로를 떠올리게 한다. 일본 왕실 2600주년을 기념하는 발레 '창조' 는 일본 왕실의 전통 춤곡에 기초한 작품이다.



Naxos 8.556790

CHILL WITH BEETHOVEN

Various Artists

일상의 지친 영혼을 달래는 베토벤의 서정적인 선율들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2악장, 로망스 2번, 비창소나타 2악장, 월광소나타 1악장, 엘리제를 위하여, 삼중협주곡 2악장, 교향곡 6번 <전원> 5악장, 교향곡 7번 2악장, 피아노 트리오 Op.11 아다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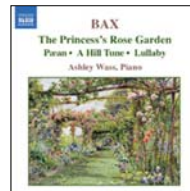


Naxos 8.557731

HARTY: Comedy Overture (A) / Piano Concerto / Fantasy Scenes

Peter Donohoe, piano / Ulster Orchestra / Takuo Yuasa, conductor

해밀튼 하티(1879-1941)는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이다. 피아노협주곡은 아일랜드 민요에 기반을 둔 낭만적인 선율과 당당한 박력이 돋보이는 작품. 영국을 대표하는 기교파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후의 강력한 타건과 얼스터 오케스트라의 짜임새 있는 앙상블이 두각을 드러낸다. 세헤라자데를 연상케하는 아라비아 풍의 관현악모음곡인 '환상적 풍경' 역시 흥미로운 작품이다.



Naxos 8.557769

BAX: Piano Works, Vol. 3

Ashley Wass, piano

백스는 7편의 교향곡과 유명한 교향시 '틴타겔' 등을 완성한 관현악곡의 대가였으나, 피아노 음악 분야에도 상당수의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남겼다. 4편의 피아노 소나타를 담은 두 음반에 이어서 이번 3집에서는 다양한 소재를 다룬 아기자기한 11곡의 소품을 수록하였다.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신세대 피아니스트 애설리 위스가 작품들에 깃든 로맨틱한 시정을 아름답게 표출하였다.



Naxos 8.557779

BELLINI: Songs

Dennis O'Neill, tenor / Ingrid Surgenor, piano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벨리니. 그는 오페라 외에도 다수의 가곡들을 작곡하였다. 12세 때의 작품인 '나비' 에서 드라마틱한 구성의 3악장 아리아인 '돌아오라 착한 처녀' 에 이르기까지 오페라에서 맛보지 못했던 작곡가의 또 다른 일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간판 스타인 데니스 오닐이 벨칸토의 진수를 들려준다. 성악도들을 위한 필칭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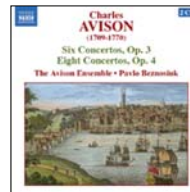


Naxos 8.557855

LINDE: Violin Concerto / Cello Concerto

Karen Gomyo, vn / Maria Kliegel, vc/ Gavle Symphony/ Petter Sundkvist, cond.

스웨덴 작곡가 보 린데(1933-70)는 스승인 라스 에릭 라르손의 신고전적인 스타일로 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두 협주곡은 독주자들의 비르투오조와 충실한 관현악법을 바탕으로한 탄탄한 음악적 구조와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걸작들이다. 15세의 나이로 1997년 영 콘서트 아티스트 콩쿠르를 석권한 일본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카렌 고묘와 낙소스의 간판 첼리스트 마리아 클리겔이 독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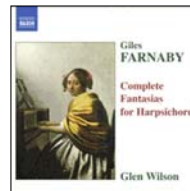


Naxos 8.557905-06(2CDs)

AVISION: 6 Concertos, Op. 3 / 8 Concertos, Op. 4

Pavlo Beznosiuk, vn / Avison Ensemble / Pavlo Beznosiuk, cond.

호평을 받았던 12곡의 협주곡 Op.6에 이어서 바로크 시대 영국 작곡가 찰스 아비슨(1709-1770)의 협주곡 14곡(Op.3&4)이 새롭게 발매되었다. 아비슨은 그로브 사전에서 '18세기 영국의 가장 중요한 협주곡 작곡가' 라고 칭찬했던 인물이다. 고음악 아카데미,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하노버 밴드 등에서 활약했던 실력과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베즈노시우키가 독주와 지휘를 맡았다.



Naxos 8.570025

FARNABY: Harpsichord Fantasias (Complete)

Glen Wilson, harpsichord

파나비(1562-1640)은 버드, 불, 기븐즈 등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건반음악 작곡가이다. 현존하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유명한 피츠윌리엄 버지널 북에 수록된 것들인데, 풍부한 장식을 활용한 대위구조와 연주자의 화려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판타지아들이 특히 주목할만하다. 미국 출신의 저명한 하프시코드 연주자 글렌 윌슨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9150

BOLCOM: Violin Sonatas Nos. 1-4

Arthur Greene, piano / Solomia Soroka, violin

순수와 경험의 노래들' (8.559216)로 2006년 그래미 4관왕에 등극한 윌리엄 볼콧. 현재 미국의 가장 개성적인 작곡가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40년의 긴 시간에 걸쳐 4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하였다. 재즈 피들러의 모습을 그린 2번, 피아졸라와 아랍 음악의 영향을 받은 3번 등 그만의 개성적인 음악세계가 음반 가득 펼쳐진다.



Naxos 8.559264

WUORINEN: 6 Trios

The Group for Contemporary Music

폴리처 상 수상자인 찰스 우리넨은 미국 모더니스트 계열의 대부वाद도 같은 작곡가이다. 서정적이고도 풍부한 표정을 지니는 음악을 추구해온 그는 글래스 등의 미니멀리스트와 대비되어 맥시멀리스트라고 표현되어왔다. 본 음반에는 베이스 트럼본, 튜바, 더블베이스를 위한 저음악기를 위한 트리오, 트럼본, 마림바, 피아노를 위한 트럼본 트리오 등 다양한 조합의 악기들을 위한 여섯 편의 삼중주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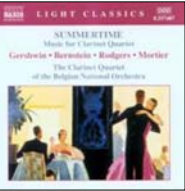


Naxos 8.660165-67(3CDs)

HANDEL: Opera <Rinaldo>

Soloists / Opera in Concert / Aradia Ensemble / Kevin Mallon, cond.

십자군에 대한 타소의 서사시에 기초한 3막 오페라인 <리날도>는 런던의 관객을 위해 완성한 헨델의 첫 오페라로 1711년에 초연되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으로 특히 2막에 등장하는 알미레나의 서정적인 아리아 '울게 하소서' (Lascia ch'io pianga)가 너무나 유명하다. 바로크 종교음악과 초기 고전교향곡들로 큰 성공을 거둔 케빈 말론/아라디아 앙상블의 첫 바로크 오페라 도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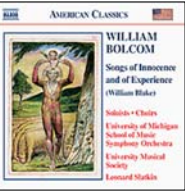


Naxos 8.557407

Music for Clarinet Quartet

Clarinet Quartet of the Belgian National Orchestra

네 대의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재즈 풍 클래식 작품들클라리넷은 클래식과 재즈 양 쪽 분야 모두에서 사랑받는 악기이다.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거시원의 섬머타임, 보즈포드의 랙타임 작품, 전형적인 아메리칸 재즈 모음곡인 톨슨의 도시 풍경 등을 클라리넷 앙상블의 독특한 음향 위에 담았다. 클라리넷의 코맹맹이 비음을 아끼는 이들이라면 이 음반을 놓치지 마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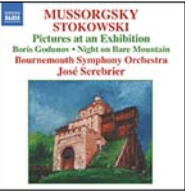


Naxos 8.559216-18(3CDs)

William Bolcom :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Christine Brewer, Measha Brueggergosman, Ilana Davidson, Linda Hohenfeld, sopranos / Joan Morris, Marietta Simpson, alto / Thomas Young, tenor / Nmon Ford, baritone / Michigan State University Choir / Michigan University Symphony Orchestra / Contemporary Directions Ensemble/ Leonard Slatkin, conductor

48th Grammy Awards.
올해의 클래식 음반, 올해의 합창 음반, 올해의 현대 클래식음악 음반, 올해의 프로듀서
ClassicsToday 10/10



Naxos 8.557645

Mussorgsky: Pictures at the Exhibition, A Night on the Bare Mountain (스토코프스키 편곡)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 Jose Serebrier

“Gramophone Disc of the Month (2005년 어워드 호)Classicstoday 10/10”
스토코프스키의 기술적이고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빛나는 레코딩
- 에드워드 그린필드 from Gramophone -”

Maria Callas’ Great Operas



Naxos 8.111025

레온카발로 : 팔리아치 (1954년 녹음)

주제페 디 스테파노 te / 마리아 칼라스 sop / 티토 곱비 bar / 롤란도 파네라이 bar / 니콜라 몬티 te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 톨리오 세라핀 cond.

Recorded: 12-17 June 1954 Mark Obert-Thorn, producer and audio restoration engineer



Naxos 8.111024

마스카니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1953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sop / 주제페 디 스테파노 te / 롤란도 파네라이 bar / 안나 마리아 카날리 ms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 톨리오 세라핀 cond

Recorded: 16-25 June and 3-4 August 1953 Mark Obert-Thorn, producer and audio restoration engineer



Naxos 8.111026-27(2CDs)

푸치니 : 나비부인 (1955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sop / 니콜라이 겐다 te / 루치아 다니엘리 ms / 마리오 보리엘로 bar / 레나토 에르콜라니 te / 루이자 빌라 ms / 마리오 칼린 bar / 플리니오 클라바시 bass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cond.

Recorded: 1-6 August 1955Mark Obert-Thorn, producer and audio restoration engineer



Naxos 8.111028-29(2CDs)

푸치니 : 이탈리아의 터키인 (1954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sop / 니콜라 로사-레메니 bass / 니콜라이 겐다 te / 올란도 가르디노 ms / 피에로 데 팔마 te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 잔드레아 가바체니 cond.

Recorded: 31 August and 1-8 September 1954부록 : 칼라스가 노래하는 콜로라투라 아리아들 (방금 들려온 목소리, 종의 노래 외)Mark Obert-Thorn, producer and audio restoration engineer

Great Russian Opera Recor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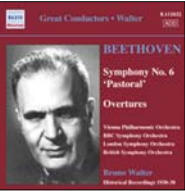


Naxos 8.111078-80(3CDs)

글린카 : 차르에게 바친 생명 (이반 수사닌) (1947, 50년 녹음)

Maxim Mikhailov, bass / Natalia Spiller, sop / Elizaveta Antonova, alt / Georgi Nelepp, te / Alexander Hosson, bass / Ivan Skobtsov, te / Fyodor Svetlanov, bass / Bolshoi Theatre / Alexander Melik-Pashayev, cond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의 아버지 글린카의 대표적인 애국 오페라. 볼쇼이의 전설적인 베이스 막심 미하일로프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만나게 된다. 1-4막 : 알렉산더 멜릭 파사예프가 지휘한 1947년 녹음, 에필로그 : 바실리 네볼린이 지휘한 1950년 녹음



Naxos 8.111032

BEETHOVEN: Symphony No. 6 'Pastoral' Overtures (Lonore No.3, Fidelio, Coriolan, The Creatures of Prometheus)

브루노 발터 / 빈 필, BBC 심포니, 런던 심포니

교향곡 6번 '전원' & 레오노레 3번 서곡 - 빈 필 (1936년 녹음)피델리오 서곡 - BBC 심포니 (1934년 녹음)코리올란 서곡 - 런던 심포니 (1938년 녹음)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 브리티시 심포니 (1938년 녹음)



Naxos 8.110994

MOZART: Serenades Nos. 10 and 13, 'Eine kleine Nachtmusik'

발헬름 푸르트벵글러 / 베를린 필하모닉 & 빈 필하모닉

클록 : 알체스테 서곡 - 베를린 필 (1942년 10월 녹음)모차르트 : 세레나데 10번 '그랑 파르티타' K361 - 빈 필 (1947년 11-2월 녹음)모차르트 : 세레나데 13번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K525빈 필 (1949년 4월 녹음)



Naxos 8.111101

GIGLI, Beniamino: London Recordings (1946-1947)

질리 시리즈 12탄. 이번 음반에는 그가 2차 대전 종전 후 런던에서 남겼던 오페라 아리아, 가곡, 캐롤, 대중가요들의 녹음을 엄선하였다. 할레비 : 유대여인 중 'Rachel, quand du seigneur', 슈베르트 : 아베마리아, 토스티 : 이별, 그루버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스크니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O Lola', 치다니니 : 사랑의 향수, 마스네 : 마농 중 'Je suis seul!' & 베르테르 중 'Pourquoi me reveiller?'



Naxos 8.120809

Duke ELLINGTON : Black, Brown and Beige (1943-1945)

Black, Brown And Beige (highlights) / Blue Skies (arr. M. L. Williams) / Boy Meets Horn ? Caravan / Carnegie Blues / Creole Love Call /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 / Hop, Skip And Jump ? It Don't Mean A Thing (If It Ain't Got That Swing) / Mood Indigo / Rockin' In Rhythm ? Rose Room / Three Cent Stomp



Naxos 8.120833

Sammy DAVIS JR : Hey There (1949-1955)

A Fine Romance / Azure / Because Of You, Part 1 / Because Of You, Part 2 ? Daddy Long Legs : Something's Gotta Give / Guys And Dolls (excerpts) / I Don't Care Who Knows ? In A Persian Market / Kismet : And This Is My Beloved / Lonesome Road / Love Me Or Leave Me ? Seventh Heaven : A Man With A Dream / Silk Stockings : All Of You / Smile, Darn Ya, Smile ? That Old Black Magic / The Birth Of The Blues / The Gypsy In My Soul / The Man With The Golden Arm ? The Pajama Game : Hey There



Naxos 5.110115

HANDEL: Water Music / Royal Fireworks (DVD-Audio)

Aradia Ensemble / Kevin Mallon, conductor

현재 낙소스의 바로크 레퍼토리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케빈 말론과 아라디아 앙상블이 헨델의 가장 유명한 두 걸작에 도전하였다. 시대악기 특유의 섬세한 소노리티를 통해 춤곡 모음곡의 경쾌함과 화려함을 한껏 강조한 연주로 특히 왕궁의 불꽃놀이인 오리지널 필사본에 포함된 트라베르소 플루트 파트를 적용한 최고 레코딩이다.

Marco Polo & Naxos Jazz Legend & Naxos Nostalgia



Naxos 8.225283

Johann Strauss I - Edition Volume 7

Slovak Sinfonietta Zilina / Ernst Marzenhofer

비록 두 아들들의 명성에 가려져 지금은 과소평가받고 있으나,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1820년대부터 1849년 사망할 때까지 빈 사교계의 큰 사랑을 받았던 춤곡 분야의 최고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다. 본 음반에는 오베르의 오페라 '대사부인'을 차용한 카쿠가 갈럽, 빈에서 유행하던 스페인 풍 춤곡들, 프랑스 풍의 화려함을 살린 파리 사육제 갈럽 등등 흥미진진한 작품들로 가득하다.



Naxos 8.225327

Karel KOMZAK I & Karel KOMZAK II: Waltzes, Marches, and Polkas, Vol. 2

Slovak Radio Symphony Orchestra / Christian Pollack, conductor

카렐 콤파크 2세는 19세기 말 빈을 주무대로 왈츠와 행진곡 등의 경음악들을 통해 큰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작곡가이다. 그의 아버지 콤파크 1세는 군악대장으로 활약했던 인물. 본 음반에는 빈 전통에 충실한 이들 부자의 유려한 왈츠 5곡, 경쾌한 폴카 4곡과 마주르카 1곡, 당당한 행진곡 3곡을 수록하였다.

Melodiya New Releases - I. 러시아 오페라 걸작선



MEL CD 10 00413

Borodin : Prince Igor (3CD)

Ivan Petrov / Tatiana Tugarinova / Vladimir Atlantov / Elena Obraztsova / Alexander Vedernikov / Artur Eisen / Chorus & Orchestra of Bolshoi Theater / Mark Ermler

Recorded in 1969 (No Libretto)
서울시향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러시아의 거장 마크 에름레르가 볼쇼이의 수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인 1969년에 완성한 역사적인 녹음. 이고르 공을 맡고 있는 이반 페트로프와 콘차크 칸 역의 베데르니코프를 비롯한 볼쇼이 최정상급의 황금 성악진, 뛰어난 합창과 육중한 관현악이 어우러져 러시아 민족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을 이상적으로 연출하였다. 게르기에프의 신 녹음을 능가하는 진정한 토종 러시아 색채를 이 음반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MEL CD 10 00764

Mussorgsky : Boris Godunov (3CD)

Ivan Petrov / Vladimir Ivanovsky / Irina Arkhipova / Mark Reshetin / Anton Grigoriev / Tamara Sorokina / Veronika Borisenko / Chorus & Orchestra of Bolshoi Theater / Alexander Melik-Pashaev

Recorded in 1962 (Libretto in)
이후에 등장한 에름레르와 페도세예프의 음반들과 더불어 보리스 고드노프의 진면목을 담은 제대로 구현한 역사적인 명연의 하나. 볼쇼이를 대표하던 오페라 지휘자인 알렉산더 멜릭 파샤에프가 지휘를 맡았고, 이 극장을 대표하던 두 저음가수인 이반 페트로프와 마르크 레세틴이 슬라브 베이스의 중후한 위력을 보여준다.



MEL CD 10 00574

Tchaikovsky : Pique Dame (The Queen of Spade) (3CD)

Vladimir Atantov / Vladimir Valaitis / Andrei Fedoseyev / Valentina Levko / Tamara Milashkina / Galina Borisova / Andrei Sokolov / Valeri Yaroslavtsev / Nina Grigorieva/ Chorus & Orchestra of Bolshoi Theater / Mark Ermler

Recorded in 1974 (No Libretto)
〈에브게니 오네긴〉과 더불어 차이코프스키를 대표하는 오페라인 이 작품은 그 명성에 비해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음반이 극히 드물었다. 지금까지 게르기에프의 음반이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었으나, 개방 이전 볼쇼이의 황금기를 고스란히 수록한 에를레르의 이 음반이 강력한 경쟁자로 각광받을 것이다. 테너 블라디미르 아틀란토프를 비롯하여 7,80년대 볼쇼이의 주역 가수들이 차이코프스키 오페라의 깊은 매력을 안겨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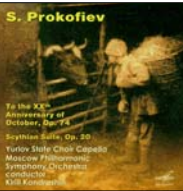
MEL CD 10 00652

Tchaikovsky : Eugene Onegin (2CD)

Valentina Petrova / Galina Vishnevskaya / Larisa Avdeyeva / Evgeni Belov / Sergei Lemeshev / Ivan Petrov / Georgi Pankov / Igor Mikhailov/ Andrei Sokolov / Chorus & Orchestra of Bolshoi Theater / Boris Khaikin

Recorded in 1955 (No Libretto)
이미 오페라 도르, 미토 등의 부틀렉 레이블을 통해 러시아 오페라 애호가들을 열광시켰던 전설의 음반이 펠로디아의 정식음반으로 재탄생하였다. 로스트로포비치의 부인이자 50년대 소련을 대표하였던 디바, 갈리나 비쉬넵스카야의 타티아나, 완벽에 가까운 렌스키를 재현한 세르게이 레메셰프, 볼쇼이를 대표하던 위대한 베이스 이반 페트로프의 그레민 공작 등 50년대 볼쇼이의 황금기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명가수들의 열연에 소련 오페라의 원로급 지휘자 보리스 하이킨의 노련한 리드가 더해졌다.

Melodiya New Releases – II. 키릴 콘드라신 시리즈



MEL CD 10 00981

Prokofiev : Scythian Suite Op.20, To the 20th Anniversary of October Op.74

Yurlov State Choir Capella /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 Kirill Kondrashin

Recorded in 1967(Op.74) & 1974(Op.20)
〈스키타이 모음곡〉은 대편성 관현악을 위한 프로코피예프의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 이는 디아길레프의 위촉으로 완성한 발레 〈알라와 물리〉에서 일부 작품을 발췌하여 엮은 곡으로 〈봄의 제전〉에 뒤지지 않는 광포한 원시성을 자랑하는 작품이다. 특히 〈악령들의 춤〉의 호쾌한 박력은 특기할 만하다. 1937년에 완성된 〈10월 혁명 20주년 기념 칸타타〉는 러시아로 귀환한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순응하였던 작곡가의 노선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후대의 걸작 칸타타인 〈알렉산더 네프스키〉를 예견케 하는 스펙터클한 작품이다.



MEL CD 10 00986

Vainberg : Symphony Nos. 4 & 6

Boy's Chorus of the Moscow Choral College /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 Kiril Kondrashin

Recorded in 1962(No.4) & 1966(No.6)
폴란드 출신의 유태계 러시아 작곡가인 모이세이 바인베르크(1919~1996) 쇼스타코비치 이후 소비에트 심포니스트의 계보를 충실히 계승한 작곡가였다. 26곡의 교향곡, 7곡의 협주곡, 17곡의 현악사중주, 다양한 악기를 위한 28곡의 소나타 외에도 오페라, 발레,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상당수의 작품을 남겼다. 교향곡 4번은 프로코피예프의 1번이나 쇼스타코비치의 9번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고전 교향곡에 대한 작곡가의 오마주와도 같은 간결한 성격의 작품인 반면, 소년 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6번 교향곡은 쇼스타코비치의 13번과 유사하게 소비에트 체제 내에서 폄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쇼스타코비치는 '이 교향곡에 내 사인을 하고 싶다.' 고 말했을 정도로 바인베르크의 교향곡 6번을 극찬하였다.



MEL CD 10 00985

Ravel: La Valse & Rapsodie espagnole / Debussy: Iberia / Saint-Saens: Introduction & Rondo Capriccioso

Rosa Fain, violin /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 Kirill Kondrashin

Recorded in 1963(Ravel), 1972(Debussy), 1965(Saint-Saens)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한 프랑스 근대 관현악 걸작선. 프랑스 인상파 작곡가들의 섬세한 필치와 투박한 박력으로 대변되던 러시아 관현악단이 웅장 어색한 조합처럼 느껴지지만, 냉전 시대의 소련 지휘자들 중에서 가장 서방 음악에 정통했던 콘드라신답게 작품들의 화려한 색채감과 미묘한 아취를 충실히 재현하였다. 생상의 〈서두와 론도, 카프리치오스〉의 독주를 맡은 로자 파인은 오이스트라흐의 애제자의 한 사람으로 현재는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음악원에서 많은 후진들을 배출해낸 명교수다.

Melodiya New Releases – III. 보로딘 현악사중주단 시리즈



MEL CD 10 00979

Vainberg: Piano Quintet & String Quartet No.8

Borodin String Quartet with Moisei Vainberg

Recorded in 1963(Quintet) & 1961(Quartet)
폴란드 출신의 유태계 러시아 작곡가 바인베르크는 쇼스타코비치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다. 22편의 교향곡과 더불어 그를 대표하는 걸작이 바로 1944년에 완성된 피아노 오중주이다. 스승의 작품에 비결될 만한 이 걸작은 방대한 외형적 규모에 풍부한 음악적 아이디어들로 가득한 충실한 내용을 겸비한 작품이다. 오리지널 멤버의 보로딘 현악사중주에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 파트를 맡음으로써 연주의 권위를 한층 더했다.



MEL CD 10 00978

Barber: String Quartet
Hindemith: String Quartet No.3
Schoenberg: String Quartet No.2

Borodin String Quartet

Recorded in 1960(Barber), 1962(Hindemith), 1970(Schoenberg)
20세기의 가장 주요한 현악사중주 3편을 보로딘 현악사중주단이 연주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주로 만나게 되는 바버의 현악사중주 2악장(현을 위한 아다지오)이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힌데미트의 현악사중주 3번은 국제음악계에 작곡가의 이름을 부각시켰던 문제작으로 신즉물주의로 이름 붙여진 순수음악적 가치를 지향하는 작곡가의 독특한 음악관이 전면에 드러나는 작품이다. 쇤베르크의 현악사중주 2번은 근대음악으로 향하는 작곡가의 첫 발걸음을 담은 역사적인 작품. 마지막 악장에서 목격되는 12음 전개는 무조음악의 서막을 알린다.

Melodiya New Releases – IV. Greate Russian Pianists



MEL CD 10 00964

Nikolai Petrov

Scarlatti: Sonatas & Haydn: Sonata in Ab

Recorded in 1963(Scarlatti) & 1973(Haydn)
196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와 1964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연거푸 실버메달을 수상하면서 서구 음악계에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니콜라이 페트로프는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미하일 플레트네프, 블라디미르 크라이네프와 더불어 소련을 대표하는 4인방 피아니스트로 크게 명성이 높았던 연주자다. 서구 레이블들을 통해 소개되는 기회가 적었기에 국제적인 지명도에서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열세에 있으나, 자국 내에서의 왕성한 연주활동과 더불어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와 러시아 예술 아카데미 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연주자이다.



MEL CD 10 00824



MEL CD 10 00825

Maria Grin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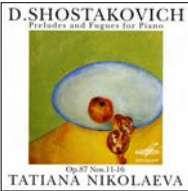
Beethoven: Piano Sonata Nos. 4, 5, 6
Recorded in 1964 & 1965

Beethoven: Piano Sonata Nos. 7, 8 <Pathetique>, 9, 10
Recorded in 1965 & 1966

마리아 그린베르그(1908-1978)는 마리아 유디나와 더불어 20세기 중반기를 대표하던 소련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명교수 블루멘펠트와 이글노프를 사사하였고, 1935년 전 소련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곡가는 베토벤이었다. 극심한 냉전체제하에서 서구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베토벤 치클루스를 통해 60년대의 주요한 베토벤 해석가로 명성이 높았다. CD로 그의 연주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구전되는 명성만 남았었지만, 멜로디야를 통해 다시금 복원되기 시작한 베토벤 소나타 전집을 통해 그에 대한 재평가의 길이 활짝 열렸다. 여성의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터치로 연출해낸 베토벤의 초기 소나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MEL CD 10 00073



MEL CD 10 00074



MEL CD 10 00075

Tatiana Nikolaeva

Shostakovich: Preludes and Fugues for Piano

Recorded in 1987
1951년에 완성된 <24곡의 프렐류드와 푸가>는 바흐의 위대한 평균율에 대한 한 소비에트 작곡가의 심혈을 다한 헌사라고 할 수 있다. 쇼스타코비치와 더불어 이 작품의 탄생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가 바로 니콜라에바다. 쇼스타코비치는 1950년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바흐 콩쿠르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이 콩쿠르의 우승자가 바로 니콜라에바. 이 도시에서 경험했던 바흐의 위대한 음악 유산과 고국의 젊은 피아니스트의 우승에 대한 감격이 이 위대한 걸작을 낳게 한 것이다. 작곡가는 니콜라에바에게 많은 조언을 요청했고, 그 결과 완성된 작품의 첫 공개초연 또한 이 피아니스트의 영예로 돌아갔다. 니콜라에바의 연주로는 1990년 녹음이 유명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1987년에 완성된 이 음반이 서구에 뒤늦게 소개된 까닭일 뿐이라 생각한다. 이 작품을 아끼는 이들이라면 보다 여유로운 템포로 곡의 대위적인 열개를 차분히 읽어나가는 이 연주의 위력을 만나볼 것을 권한다.

Melodiya New Releases – V. ETC.



MEL CD 10 00665

Tchaikovsky: Ballet <Nutcracker> Complete (2CD)

Bolshoi Theatre Orchestra/ Gennadi Rozhdestvensky

Recorded in 1960
80년대 후반기 라이선스 LP로 소개되어 많은 국내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로제스트벤스키/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후두까지 인형 전국 녹음이 CD로 다시금 등장하였다. 볼쇼이 극장 최고의 전성기를 담은 소중한 기록답게, 금관의 빛나는 울림을 위시한 오케스트라의 탄탄한 앙상블이 러시아적인 해석의 극치를 보여준다. 다재다능함으로 대변되는 로제스트벤스키이지만 그의 섬세한 재능은 발레 음악에서 특히 날카롭게 빛난다.



MEL CD 10 00505

A. Rubinstein: Piano Trio No.3, 3 Pieces for Cello & Piano

Eleonora Teplukhina, piano / Marat Bisengaliev, violin / Yuri Smenov, cello

리스트를 사사한 낭만시대의 명 피아니스트이자, 동생 니콜라이와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음악원을 설립하면서 수많은 후진을 양성했던 음악 교육자였던 안톤 루빈시타인은 민족주의 계열의 오인조 작곡가들에 대항하는 일군의 서구지향적인 작곡가들의 태두이기도 하였다. 6곡의 교향곡, 17편의 오페라, 연주자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기교적인 피아노 작품 등을 작곡하였으며, 실내악에서도 아름다운 선율미를 갖춘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 트리오 3번은 이후 등장하는 차이코프스키나 라흐마니노프의 걸작들에 뒤지지 않는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이다.



MEL CD 10 00970

A Rubinstein: Cello Sonata No.1

Tcherepnin: Cello Sonata No.3

Gretchaninov: Cello Sonata

Yuri Semenov, cello / Ksenia Stegman, piano

부당하게 잊혀져 있던 러시아 첼로 소나타 3편을 수록하였다. 안톤 루빈시타인의 첼로소나타 1번은 서구지향적인 세련된 음악을 추구했던 작곡가의 작품답게 아름다운 선율과 로맨틱한 서정을 담은 매력적인 작품. 루빈시타인,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로 이어진 서구파 계보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던 작곡가인 그레차니코프의 첼로소나타 역시 첼로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에 반해 1928년에 완성된 체레프닌의 첼로소나타 3번은 서구적인 모더니즘의 영향이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Also Availables

MEL CD 10 00956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로미오와 줄리엣 / 키릴 콘드라신

MEL CD 10 00955 차이코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 키릴 콘드라신

MEL CD 10 00957 발라키레프, 칼린니코프 교향곡/ 키릴 콘드라신

MEL CD 10 00921 로디온 아자르킨의 예술 2집 (더블 베이스 리사이틀)

MEL CD 10 00954 드뷔시, 라벨 현악 사중주 (보로딘 현악사중주단)

MEL CD 10 00958 슈니트케, 세발린, 스트라빈스키 현악사중주(보로딘 현악사중주단)

MEL CD 10 00868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1번 & 칸타타 '모스크바' (니콜라이 골로바노프)

MEL CD 10 00929 글라주노프가 지휘하는 글라주노프 (교향곡 6번, 사계)

MEL CD 10 00876 오이스트라흐 20세기 바이올린협주곡 (헌데미트, 시마노프스키, 바르톱)

MEL CD 10 00230 오이스트라흐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협주곡(K219 & K271a)

MEL CD 10 00877 다닐 샤프란, 드보르작 & 슈만 협주곡

MEL CD 10 00879 헌데미트 4가지 기질 (아나톨리 베레르니코프, 피아노)

MEL CD 10 00925 골루베프 피아노협주곡 3번 (타티아나 니콜라에바, 피아노)

MEL CD 10 00960 골로빈 작품집 (아기 사슴 밤비 모음곡 외)

MEL CD 10 00947 바이올리니스트 미하일 바이만 박스세트 (6CDs)

MEL CD 10 00814 (8CDs) 말러 교향곡 선집 (1,3,4,5,6,7,9번)키릴 콘드라신, 지휘 /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MEL CD 10 00909 (8CDs)	로제스트벤스키가 지휘하는 프로코피예프 발레들
MEL CD 10 00993	S. 리히터의 피아노협주곡 결작선 (차이코프스키 1번, 라흐마니노프 2번)
MEL CD 10 00583	오이스트라흐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 로스트로포비치의 로코코 변주곡
MEL CD 10 00685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게나디 로제스트벤스키)
MEL CD 10 00656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3번 (에프게니 모길레프스키, 피아노)
MEL CD 10 00070	Mozart Violin Sonata KV 378 & 379 올렉 카간, Violin S 리히터, Piano
MEL CD 10 00655	Music For Violin & Guitar 레오니드 코간, Violin 알렉산더 이바노프-크람스코이, guitar
MEL CD 10 00095	쇼스타코비치 Viloin Sonata Op.134, Viola Sonata Op.147 올렉 카간 violin /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piano / 유리 바쉬메트 viola
MEL CD 10 00218	드보르작 Quintet Op.81 / S 리히터, pf 보로딘 현악사중주단
MEL CD 10 00251	베토벤 Variations on Diabelli’s Waltz (타티아나 니콜라에바, piano)
MEL CD 10 00252	에밀 길렐스 Tchaikovsky & Medtner Piano Sonatas
MEL CD 10 00770 (6CDS)	Mravinsky Shostakovich Symphonies Selection
MEL CD 10 00800 (5CDs)	Mravinsky Edition : Beethoven, Brahms, Bruckner etc
MEL CD 10 00755 (5CDs)	Mravinsky Edition : Mozart, Wagner, Beethoven, Schubert etc
MEL CD 10 00932 (5CDs)	Mravinsky Edition : Glazunov, R Strauss, Bartok etc
MEL CD 10 00745	David Oistrakh Edition (5CDs)
MEL CD 10 00515	리히터가 연주하는 ‘전람회의 그림’ 과 차이코프스키 피아노소나타
MEL CD 10 00731	리히터 에디션 1집 (바흐)
MEL CD 10 00732	리히터 에디션 2집 (베토벤)
MEL CD 10 00733	리히터 에디션 3집 (슈만)
MEL CD 10 00734	리히터 에디션 4집 (슈베르트, 프랑크, 쇼팽, 바르톡)
MEL CD 10 00735	리히터 에디션 5집 (쇼팽 협주곡 2번, 생상 협주곡 5번)
MEL CD 10 00821	The art of Maria Yudina Vol.1 : Brahms Piano Quartet & Variation on Handel’s Theme
MEL CD 10 00710	Danill Shafran 5CD Box Set
MEL CD 10 00716	The Art of Emil Gileles (5CDs)
MEL CD 10 00792	Emil Gilels Recitals of 1962–1970 (5CDs)
MEL CD 10 00211	바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데도바, 볼초크, 니콜라에바)
MEL CD 10 00037	모차르트 두 대 &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니콜라에바, 루간스키, 비르살라제)
MEL CD 10 00203	프로코피예프 피아노협주곡 1,4,5번 (포스트니코바, 로제스트벤스키)
MEL CD 10 00204	프로코피예프 피아노협주곡 2,3번 (포스트니코바, 로제스트벤스키)
MEL CD 10 00867	표도르 드루지닌이 연주하는 러시아 비올라 소나타 (글린카, 루빈시타인, 쇼스타코비치)
MEL CD 10 00883	로디온 아자르킨의 예술 1집 (더블베이스 리사이틀)
MEL CD 10 00746	러시아인 피아노 스쿨 1집 (켄리히 네이가우스)

MEL CD 10 00747	러시아인 피아노 스쿨 2집 (블라디미르 소프로니츠키) (2CDs)
MEL CD 10 00748	러시아인 피아노스쿨 3집 Liszt 12 Etudes d’ execution transcstante : Lazar Berman
MEL CD 10 00840	라흐마니노프 심포닉 댄스, 중 (키릴 콘드라신)
MEL CD 10 00841	미야스코프스키 교향곡 6번 (키릴 콘드라신)
MEL CD 10 00942	보로딘 현악사중주 1,2번 (보로딘 쿼텟)
MEL CD 10 00922	보트난스키 – 심포닉 콘체르탄테, 벤다 – 협주곡
MEL CD 10 00940	하이드 첼로협주곡 1,2번 (알렉산더 루딘)
MEL CD 10 00850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마크 고렌슈타인)

MDG New Releases



MDG 3411303-2

W. A. Mozart: Samtliche Clavierwerke Vol. 3
(Sonatas K311 & K309, Adagio K356,12 Variations K179 & K354)

Siegbert Rampe / harpsichord, clavichord and pianoforte

호평을 이끌어온 지그베르트 램페의 모차르트 시리즈, 그 세번째 음반.모차르트 서거 250주기의 서두를 장식하는 램페의 최신보.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를 번갈아가며 작곡가의 소나타와 변주곡을 정격적으로 연주하였다. 옛 건반악기들의 고아한 울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MDG 6031320-2

Gustav Mahler: Symphony No.4 arr. for chamber ensemble

Christiane Oelze, soprano / Thomas Christian Ensemble

실내악 앙상블로 만나는 말러 교향곡 4번.브루크너 교향곡 7번의 실내악 버전으로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던 토마스 크리스티안 앙상블이 말러에 도전하였다. 작곡가의 교향곡 중 가장 순정의 아름다움을 지닌 교향곡 4번이 에르빈 슈타인의 적절한 편곡을 통해 한층 농밀한 섬세함을 발산한다. 정상급 소프라노 월체의 투명한 음성이 음반의 가치를 한층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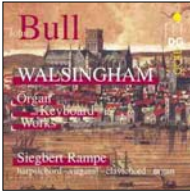


MDG 6191374-2

J.P. Rameau: Nouvelles Suites (arr. for wind instruments)

Calefax Reed Quintet

“목관 앙상블이 들려주는 라모의 세련된 음악들.르네상스 폴리포니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목관앙상블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온 칼레팍스 오중주단이 라모의 화려한 바로크 모음곡에 도전하였다. 오보에, 바순,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베이스 클라리넷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색다른 소노리티가 귀를 즐겁게 만든다.



MDG 3411258-2

John Bull : Walsingham Keyboard and Organ Works

Siegbert Rampe / harpsichord, clavichord, virginal & organ

영국 버지널 악파를 대표하는 작곡가 존 볼.프로베르거, 무파트, 필립스, 스베를링크로 이어지는 램페의 르네상스 키보드 거장 순례가 ‘16세기의 리스트’로 불리는 영국 버지널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 존 볼에 이르렀다. 4종류의 건반악기를 번갈아가며 옛 거장의 뛰어난 유산들을 발굴해낸 램페의 학문적 열정과 예술적 재능이 빛을 발한다.



MDG 30203632

Joseph Haydn: Divertimenti Hob. IV:6-11

Paul Meisen, flute, Erno Sebestyen, violin, Martin Ostertag, violoncello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삼중주가 빛어내는 파파 하이든의 친근한 매력음반에 수록된 6편의 디베르티멘토는 파파 하이든의 쾌활하고도 순진무구한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작곡가는 이 작품들을 위해 자신의 기존 작품 몇을 차용하였는데, 그 흔적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결점없는 기교' (FonoForum) '모범적인 연주' (Musica Sacra)



MDG 60913752

Georg Friedrich Handel: Arianna in Creta HWV 32 (3for2)

M. Katsuli, M.E. Nesi, I.Karaianne, M.Papazidou / Orchestra of Patras / George Petrou, cond.

"MDG가 재발굴한 헨델의 잊혀진 오페라<크레타의 아리안나>는 헨델이 1733년에 완성한 오페라로, 한달 앞서 초연된 경쟁자 포포라의 <나소의 아리안나>와 정면대결을 펼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작곡가의 회심작이었다. 이미 <오레스테>로 좋은 평가를 얻었던 그리스 출신의 젊은 솔리스트들과 지휘자 페트로우가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MDG 90613636

Arp-Schnitger-Orgel Norden

(Works by Weckmann, Byrd, Buxtehude, Bach, Schlick etc.) [Hybrid SACD]

Agnes Luchterhandt & Thiemo Jansen, Organ

유서깊은 노르덴의 루트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오르간의 대향연.북독일은 17세기 오르간 제작자들의 메카였다. 당대의 유명한 오르간 제작자인 아르프 슈니트거가 로르덴 루트거리 교회에 설치한 오르간은 이 일대의 가장 크고 훌륭한 악기의 하나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건물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음향과 MDG의 2+2+2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소리의 놀라운 향연을 펼쳐보인다.

Proprius New Releases



PRSACD 9086

오토 올손 : 레퀴엠 (Hybrid-SACD)

실비아 린덴스트란드, 소프라노 / 잉거 블롬, 알토 / 보른 하우간, 테너 / 올레 스킴드, 베이스 / 구스타프 바사 오라토리오 콰이어 / 안더스 올손, 지휘 / 스웨덴 로얄 오페라 오케스트라

스웨덴을 대표하는 종교합창 작곡가의 낭만적인 레퀴엠
오토 올손(1879-1964)은 종교합창곡과 오르간 음악 분야에서 크게 활약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프랑크, 비도르 등의 프랑스 오르간악파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낭만음악의 전통과 전통 대위법에 충실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레퀴엠은 그가 25세 되던 해에 완성한 작품으로 마치 브람스, 프랑크 그리고 포레의 종교합창곡에서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인간미와 숭고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4.0채널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Hybrid-SACD이며, 프로프리우스가 자랑하는 자연음에 근접한 우수한 녹음이 위력을 발휘하는 음반이다. Audiophile Audition 만점.

KKV New Releases



FXCD 295(DDD)

비발디 : 키리에 RV587, 서주와 글로리아 RV640, 글로리아 RV589, 협주곡 RV563

니다로스 교회 소녀 합창단 / 에드워드 히깅보튼, 지휘 / 노르웨이 바로크 오케스트라

오갈 곳 없는 소녀들을 위한 구제기관이었던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의 음악교사로 장기간 봉직하였던 비발디는 그곳의 소녀 음악도들을 위해 다수의 종교합창곡과 기악곡을 작곡하였다. 유명한 글로리아를 비롯한 본 음반의 수록곡들 역시 이러한 배경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합창지휘자인 히깅보튼은 소녀 합창단과 소편성 시대악기 앙상블을 동원하여 수록곡들의 정격성을 충실히 재현하였다. 월드음악 분야에서 북구의 청명함을 담은 맑은 사운드로 사랑받아온 힐켈리 레이블이 내놓은 첫 번째 정통 클래식 음반.

SDG New Releases



SDG 115(2CDs)

The Monteverdi Choir / The English Baroque Soloists / Sir John Eliot Gardiner
Joanne Lunn(sop) / Richard Wyn Roberts(alt) / Julian Podger(te) / Gerald Finley(bass)

JS 바흐 - 칸타타 19집 (CD1)

주현절(Epiphany) 후 두 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155 Mein Gott, wie lang, ach lange 나의 하나님여, 얼마나 오래도록
BWV3 Ach Gott, wie manches Herzeleid 아아 하나님여, 마음의 고통이 많사오니
BWV13 Meine Seufzer, meine Tranen 나의 한숨, 나의 눈물

Joanne Lunn(sop) / Katharine Fuge & William Towers(alt) / Paul Agnew(te) / Peter Harvey(bass)

JS 바흐 - 칸타타 19집 (CD2)

주현절(Epiphany) 후 네 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26 Ach wie fluchtig, ach wie nichtig 아아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허무한가
BWV81 Jesus schlaft, was soll ich hoffen? 예수 잠드시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랴
BWV14 War Gott nicht mit uns diese Zeit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BWV227 Motet - Jesu, meine Freude 예수는 나의 기쁨



SDG 118(2CDs)

Ruth Holton(sop) / Claudia Schubert(alt) / James Oxley(te) / Peter Harvey(bass)
Live recordings in Greenwich (2000년 1월 16-7일) & Hampshier (2000년 1월 30일)

JS 바흐 - 칸타타 21집 (CD 1)

사순절(Quinquagesima)을 위한 칸타타
BWV22 Jesus nahm zu sich die Zwölfe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모으셨도다
BWV23 Du wahrer Gott und Davids Sohn 그대 진실한 하나님이자 다윗의 아들이여
BWV127 Herr Jesu Christ, wahr' Mensch und Gott 진실한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BWV159 Sehet, wir gehn hinauf gen Jerusalem 보라,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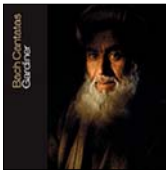
Malin Hartelius(sop) / Nathalie Stutzmann(alt) / James Gilchrist(te) / Peter Harvey(bass)
Live recordings in Cambridge (2000년 3월 5일) & Norfolk (2000년 3월 26일)

JS 바흐 - 칸타타 21집 (CD 2)

성지주일(Palm Sunday), 사순절 3주일(Oculi), 수태고지(Annunciation)를 위한 칸타타
BWV182 Himmelskonig, sei willkommen 하늘의 왕이시여, 어서 오소서
BWV54 Widerstehe doch der Sunde 자, 죄악과 싸우라
BWV1 Wie schon leuchtet der Morgenstern 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 새벽인가

Also Availabl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음반



SDG 101(2CDs)



SDG 104(2CDs)



SDG 108(2CDs)

2005년 12월 그라모폰
이 달의 음반



SDG 110(2CDs)



SDG 113(1CDs)



SDG 114(1CDs)

LPO New Releases



LPO 0008(2CDs)

하이든 : 오라토리오 <천지창조>(Die Schoepfung)

루치아 포프 (sop) / 안소니 롤프 존슨 (te) / 벤자민 렉슨 (bass)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합창단 / 클라우스 텐슈테트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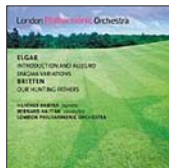
1984년 2월 19일 로알 페스티벌 홀 실황

하이든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외형적인 규모와 음악적 원대함에서 하이든의 작품들 중에서 전례가 없는 대작이다. 태초의 빛의 전율에서 여러 동물들을 나타내는 음악적 표현들의 유머러스함까지, 합창단의 뛰어난 활약과 하이든의 컨셉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통해 클라우스 텐슈테트와 일급 솔리스트들은 이 레코딩에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Edward Greenfield from <The Guardian>

Also Availables



LPO 0001



LPO 0002



LPO 0003



LPO 0004



LPO 0005



LPO 0006

LPO-0001(Hybrid-SACD)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1번 & 5번 / 쿠르트 마주어, 지휘

LPO-0002 엘가 : 인트로덕션과 알레그로, 브리튼 : Our Hunting Father /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지휘

LPO-0003 바그너 : 관현악 걸작선 / 클라우스 텐슈테트, 지휘

LPO-0004(Hybrid-SACD) 라흐마니노프 : 죽음의 섬, 심포닉 댄스 /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지휘

LPO-0005(Hybrid-SACD) 시벨리우스 : 교향곡 2번 & 7번 / 파보 베르글룬트, 지휘

LPO-0006 창립원년의 런던 필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외 / 토마스 비침, 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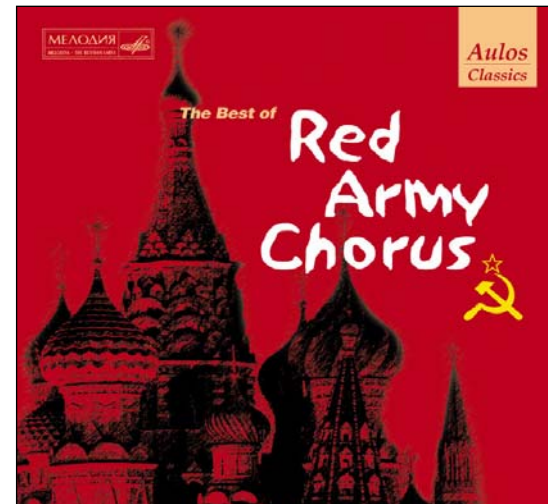
New Releases | CD

구소련에서 가장 뛰어난 합창 앙상블 중의 하나로 추앙 받았던 붉은 군대 합창단

레드 아미 코러스

이번 아이템은 구소련에서 가장 뛰어난 합창 앙상블 중의 하나로 추앙 받았던 붉은 군대 합창단, 즉 레드 아미 코러스의 베스트 음반이다.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러시아 및 러시아 공화국의 민속음악들은 급격한 발전을 보았다. 엘리트주의나 종교색이 짙은 문화를 거부하고 인민을 위한 대중예술을 보급시키는데 진력했던 공산주의 체제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레드 아미 코러스는 1928년 붉은 군대의 강력한 원조 하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이고 작곡가, 지휘자였으며 소련의 인민예술가로 추앙 받았던 인물인 알렉산더 알렉산드로프(Alexander Aleksandrov)에 의해 창단되었다. 악단은 처음에는 이 창단자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프 앙상블이란 명칭으로 불렸는데, 1928년 10월 12일 소비에트 군대의 중앙 궁 무대에서 첫 선을 보였



AMC2-063

다. 이때만 해도 이 앙상블은 10여명의 보컬 외에 두 명의 댄서와 연주가들 정도로 구성된 작은 악단이였다. 레드 아미 코러스가 오늘날 우리가 즐겨 듣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남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댄서들이 포진한 대형 연주 그룹이 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1946년 알렉산드로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아들인 보리스 알렉산드로프가 이 악단을 이끌었다.

우선 슬라브적인 풍미로 가득한 러시아 민요를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이다. 음반을 올리면 첫 곡으로 '칼린카'가 나온다. '칼린카(Kalinka; 러시아어 발음은 '칼린까')'란 영어로 '스노우볼 트리(snowball tree)', 우리 말로는 '백당나무'라고 번역해 쓰고 있는 '칼리나'의 애칭, 즉 지소어(指小語)이다. 송아지를 작은 소, 땅아지를 작은 말로 고쳐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온전하게 풀어쓰려고 한다면 '작은 칼리나 나무' 정도로 옮길 수 있겠다. 러시아 민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에 속하는 이 노래는 속도를 내서 열정적으로 치닫는 후렴구가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가사 중의 '아이 롤리 롤리'라는 말은 우리 민요에서의 '꽤지나 칭칭 나네' 같은 말처럼 러시아 민요에서 볼 수 있는 후렴구이다. 뜻은 '오 좋구나 좋아'라는 정도로 새기면 되겠다. '칼린카'는 자연을 소재로 한 러시아 민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중의 하나인데, 이 음반에는 그 외에도 '들판의 자작나무', '나스타샤', 그리고 '페테르스카야 거리 아래로'와 같은 멋진 자연 소재의 노래들까지 포함시켰다. '붉은

사라판'은 모녀간의 대화를 통해 삶의 앰비밸런스인 고독과 자유의 상념을 통해, 즉 예전의 러시아 여인이 느끼던 삶의 애환을 짙게 표출해보이고 있다. 사라판은 옛 러시아 농촌 여성이 입던 옷을 가리킨다. 강탈이나 도적에 관한 노래도 있다. 바로 '12명의 도적'과 '스텐카 라진에 대한 노래'가 그것인데, 주목할 부분은 노래의 주인공인 도적들은 개과천선한 사람이거나, 그들 러시아 민중의 영웅이란 점이다. '스텐카 라진'은 1668년부터 1670년 봄까지 가난한 카자크 무리를 이끌고 모스크바 왕국에 저항했던 인물인 카자크 출신의 부호 스테판 라진을 노래한 곡이다. 스테판 라진이 이끄는 무리들은 한때 아스트라한, 사라토프 등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지만, 서구식으로 훈련 받은 정부군의 반격을 받아 결국 커다란 곤경에 빠지고 라진은 체포되어 모스크바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라진은 도적의 우두머리였지만 러시아 민중에게는 오래전부터 용맹스런 전설적 영웅으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러시아에는 이 곡 외에도 그의 활약상을 그린 노래들이 더 있다. '불가강 배끄는 사람들의 노래'나 '초원, 오, 주위는 초원뿐'은 고통 받는 하층민의 비탄의 노래들이다. 특히 '불가강 배끄는 사람들의 노래'는 이 음반에서 압권이다. 이 유명한 노래 한곡만 듣고도 이 음반에 매혹될 사람도 적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정말 뉘앙스 풍부한 노래를 들려준다. '안녕, 내 사랑'은 당연히 떠나간 사랑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곡이다. '술리코'는 스탈린의 애창곡이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카프카즈 산맥, 그루지야의 노래다. 잘 알려진 대로 스탈린도 그루지야 출신이었다. 아주 센티멘털한 서정적인 노래다. 음반에는 레드 아미 코러스가 줄곧 무대에 올렸던 다른 혁신적인 혹은 애국적인 충정심이 우러나는 노래 두 곡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트랙에 있는 '바르샤바의 여인(Warsovienn)'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폴란드의 노래(Varshavyanka)를 편곡한 작품이며,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의 감동적인 호소가 가슴 뭉클하게 하는 노래다. '오 나의 들판이여(Oh, My Field)'는 소비에트 초기의 군가이며, 너무나도 유명한 '길(En Route!)'은 유명한 영화를 위해 씌어졌고, 2차 대전의 행진가였다. 이데올로기를 떠나 모두 너무 아름다운 노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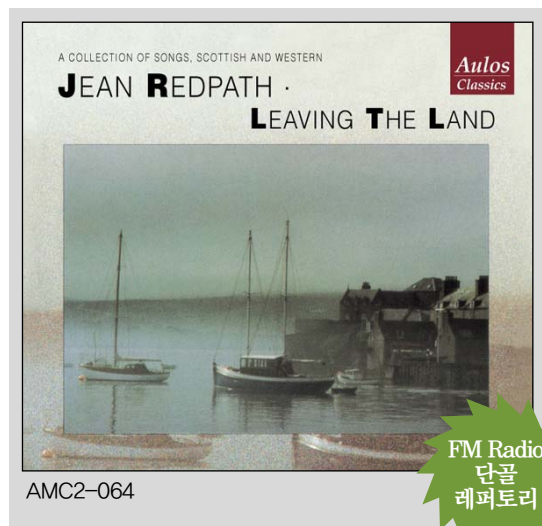
글 / 이성일

스코틀랜드의 국민적 가수

진 레드파스 Jean Redpath

“옛날의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가슴 저리게 하는 추억의 노래 〈매기의 추억〉 수록”



이 음반은 스코틀랜드가 낳은 위대한 음유시인이며 포크송 가수인 진 레드파스가 1990년에 내놓았던 ‘Leaving the Land’라는 앨범(Rounder Records)을 라이선스로 발매한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반이기 때문에 애호가들은 제목에 끌려 들어와 수록곡을 확인한 후 곧바로 ‘아, 이 음반이구나!’ 하며 탄성을 지를 것 같다. ‘Leaving the Land’, ‘Un Canadien Errant’, ‘Last Minstrel Show’, ‘Snow Goose’, ‘Sonny’s Dream’, ‘Halloween’, ‘Now I’m Easy’ 등 스코틀랜드의 노래와 서구사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억의 애창곡들이다. 개중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노래들도 있으나 모두 주옥같이 아름다운 것들이다. 레드파스의 따스하면서도 영혼에 깊이 호소하는 듯한 음성과 너무도 잘 어울린다. 이 음반에서 핵심 레퍼토리를 꼽으라면, 단연 ‘매기’의 노래다. 우리의 애창곡집이나 음악교과서에서 번안곡으로 소개되었던 노래의 제목은 ‘매기의 추억’이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매기...” 이 ‘매기의 추억’은

캐나다의 노래다. 19세기 노스탤직 장르(Nostalgic genre)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의 하나다. 2006년 현재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노래를 듣자마자 단번에 아련한 향수에 빠져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억의 노래 가운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깊은 향수를 자아내는 것도 드물지 않을까 싶다. 노래의 주인공 매기(Maggie)는 매기 클락(Maggie Clark)이란 이름의 실존인물이었다. 매기는 1841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그린브룩 타운십(Greenbrook Township) 출신의 아름다운 아가씨. 그녀는 조지 존슨(George Johnson)이라는 시적 감성이 풍부한 21세 청년과 사랑에 빠진다. 존슨은 토론토(Toronto)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총각선생이다. 두 청춘 남녀는 열렬히 사랑했고 곧 약혼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는가! 사랑에 빠진 매기는 곧 결핵에 걸려 암울한 병상생활을 하게 된다. 매기는 그토록 행복한 순간에 믿기지 않게 일찌감치 찾아온 운명에, 그 운명의 냉혹함에 절망하고 만다. 얼마 전까지, 사랑에 빠진 두 남녀에게는 주위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녀에게 달라붙은 병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금세 잿빛으로 퇴색시켜 버렸다.

그녀가 투병하고 있는 동안 존슨은 아픔을 삼키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존슨은 운명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1864년 10월에 존슨은 운명을 예측하면서도 매기와 결혼한다. 하지만, 매기는 그 이듬해에 사랑하는 이의 눈물로 자신의 눈물을 섞고 눈을 감는다. 존슨은 엄청난 슬픔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지만, 그래도 운명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육체는 사라졌어도 사랑은 내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기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길이 간직하고 싶었던 존슨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친구를 찾아가간다. 그리고 매기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눈물로 써놓았던 자신의 시편에 음악을 붙여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올드 팬들의 가슴에 사무치는 노래 ‘매기’이다. 매기의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노래, 그야말로 ‘사랑과 슬픔의 시’다!

숲 속에서는 제비꽃 향기가 나고 있었지, 매기
산들바람에 실려 온 그 향기 상큼했잖아.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매기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숲 속 오솔길을 따라 밤나무 울창했었지, 매기
울새는 나무에서 크게 노래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매기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황금빛으로 늘어진 수선화가 반짝반짝 빛났었지
풀밭에 뛰구는 낙엽과 춤도 추었었지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매기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나무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을 때, 매기

진 레드파스 (Jean Redpath) 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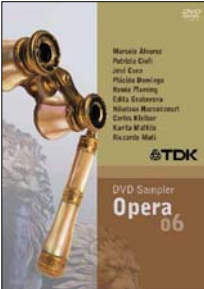
스코틀랜드의 국민 가수 진 레드파스는 에딘버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해머 딜시머 연주가였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노래를 아주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레드파스는 어릴 때부터 스코틀랜드 선율을 온몸에 휘감고 성장했다. 어머니는 그녀한테 많은 노래를 불러줬다. 가수 레드파스에게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파이프서에서 성장한 후 레드파스는 고향 에딘버러로 돌아갔고, 그곳 대학에서 중세역사를 공부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가슴과 머릿속에서 맴돌며 성장하고 결국 총만해졌던 스코티시 인스피레이션은 곧 그녀를 스코틀랜드의 문화와 역사에 심취하게 만들었다. 당시 그녀의 진로를 폭넓게 그리고 힘차게 열어준 친구로는 민요가수이며 스코틀랜드 연구학교의 창립자인 해미시 헨더슨이 제일 먼저 꼽힌다. 레드파스는 헨더슨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을 담는 테이프나 음반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의 열정에 힘입어 자신의 음악세계를 더욱 확장해나갔다. 그녀는 결코 유복한 가정에서 쉽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다. 운전교습, 심지어 장의보조의 일까지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학교를 다녔다. 대학을 졸업한 후 24세 되던 해인 1961년에 레드파스는 호주머니에 겨우 11달러를 넣어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갔다.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코네티컷에서 생활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이방인으로서의 최대의 행운을 거머쥐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 공연을 마친 후 그녀는 곧바로 60년대를 풍미했던 포크가수 램블링 잭 엘리엇, 그리고 밥 딜런 등과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따스하고 자연스럽고 힘 있는 그녀의 음성에 매료된 미국인들은 그녀를 당대 최고의 포크가수 명단에 올려놓는다. 1963년 공연을 마친 직후에는 엘렉트라 레코즈(Elektra Records)와 계약, 음반을 발매했고 그 후 많은 메이저 음반사들로부터도 러브 콜을 받았다. 그녀의 명

우리는 나날이 더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매기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내가 약속했었잖아 다시 돌아 올 거라고, 매기
그리고 우린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매기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그런데 바다는 왜 그렇게 넓어졌는지 몰라, 매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멀어질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매기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우리의 꿈, 그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나 봐, 매기
우리에게 간절하던 희망들 이젠 의미 없게 되었어.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매기
너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성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까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홍콩에까지 미쳤고, 결국 그런 나라들까지 찾아가서 엄청난 찬사를 얻어냈다. 레드파스가 ‘위대한’이란 수식어를 받는 이유의 중심에는 물론 그녀의 많은 음반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기할만한 것은 1976부터 시작한 로버트 번즈 프로젝트다. 22권을 계획했었고, 나오는 음반마다 비평가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와 작업했던 작곡가 서지 하비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와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녀를 아끼는 팬들은 몹시 안타까워했다. 레드파스는 하비를 대신할 작곡가가 없다고 말했었다. 레드파스는 1979년부터 스코틀랜드 스티어링 대학에서 강의하고, 수년간 민속음악학이나 스코틀랜드 노래에 대한 강좌를 열었으며, 유명한 음악축제인 에딘버러 페스티벌에도 나타나 스코틀랜드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레드파스의 공로를 높이 산 스티어링 대학과 세인트 앤드루 대학은 그녀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977년 레드파스는 에딘버러 성의 왕실 기념 축제 연회에서 비틀즈와 함께 초청되었고, 10년 후에는 비틀즈 이후 두 번째로 버킹검 궁으로 초청되어 영국 왕실 최고의 영예인 MBE훈장을 받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국립 갤러리에선 스코틀랜드의 이름을 빛낸 인물로 레드파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보스턴 글로브는 이렇게 말한다. “진 레드파스는 로버트 번즈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영예로운 음유시인이며 로버트 번즈의 노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가수다. 그녀의 깊고 풍부한 메조소프라노 음성은 아주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 같고, 그 자연스러움에는 숭고한 힘을 간직하고 있다”

글 / 이 성 일

TDK DVD



TDK DVWW-OPSMPL3

2006년 DVD 오페라 샘플러

초특급 인기 샘플러 시리즈!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초까지 발매된 20여 타이틀의 TDK 오페라 DVD들에서 최고의 명장면만을 엄선해서 꾸민 한 장의 하이라이트 영상물.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카르멘 중의 전주곡을 시작으로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아바도), 베토벤의 피델리오(아르농쿠르), 모차르트의 돈조반니(리카르도 무티),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카라얀),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카를 뵘),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주빈 메타) 등 그야말로 초호화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았다. 20세기 최고의 남녀 명가수들이 주옥같은 아리아 향연을 펼친다. 뵘의 것이 1960년대일 뿐, 나머지는 모두 최근작으로 생생한 화질을 자랑한다. 두툼한 2006년 카탈로그가 들어있어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진다.



TDK DVWW-COSMPL3

2006년 DVD 발레 콘서트 샘플러

반복해 보고 싶었던 트랙들만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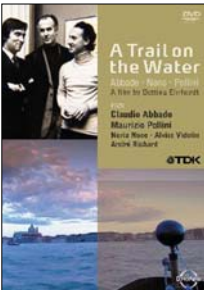
2005년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TDK의 발레 및 콘서트 DVD에서 다시 돌려보고 싶었던 트랙들만을 골라 담았다.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신포니아(로린 마젤 지휘)로 시작하고 나이젤 케네디의 애절한 바이올린이 인상적인 바흐의 마태 수난곡의 아리아를 들을 수 있으며, 말러의 교향곡 2번의 유명한 아리아를 콘트랄토 안나 라르손의 절절한 음성으로 감상하고,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의 3악장 아다지오를 호평을 받았던 귄터 반트 박스에서 꺼내 들 수 있다. 토머스 햄슨이 부르는 말러의 '봄의 아침', 이안 보스트리지가 부르는 슈베르트의 마왕 등 가곡 트랙도 이채롭다. 발레장면으로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노래, 들리브의 실비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역시 두툼한 2006년 카탈로그 때문에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진다.

루이지 노노 : 배가 지나간 자국

연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아르놀트 쇤베르크 합창단 등

루이지 노노와 두 친구 이야기

현대음악계의 세 거장, 즉 작곡가 루이지 노노,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 그리고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영상물이다. 세 음악가의 인터뷰와 리허설 장면을 많이 담았고, 역사적으로 해상공화국의 요지였던 독특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이탈리아 북부 도시 베네치아의 컷들은 한 폭의 수채화로 그려졌다. 베네치아는 루이지 노노의 고향도시이기도 하다. 노노는 두 사람보다 연배가 높지만 세 음악가 사이의 돈독한 우정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 폴리니와 아바도는 이미 60,70년대에 유명한 노노 작품집을 내서 작곡가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었다. 따스하기 보다는 냉철하게 느껴지는 폴리니의 피아니즘을 한층 더 새롭게 이해하게 만드는 영상물이다. 보너스 트랙에서 폴리니는 노노를 좀더 진지하게 보여준다. 1999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녹음이다.



TDK DVWW-DOCNONO

헨델 : 줄리오 체사레

플라비오 올리베, 체사레 / 엘레나 데 라 메르세데, 클레오파트라 / 에바 포들레스, 코르넬리아 / 조르디 도메네크, 톨로메오 / 미카엘 호프슈테터, 지휘 /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저명한 오페라 연출가 헤르베르트 베르니케의 유작

로마의 위대한 영웅 케사르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는 헨델의 3막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는 1724년 런던 헤이마켓의 킹스 시어터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헨델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주가를 올린 시점이었고, 이 작품 역시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동경과 이국적 배경에 대한 호기심에 편승하여 대중들 사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영상물은 2004년 7월 바르셀로나의 유서 깊은 리세우 대극장에서 펼쳐진 공연을 수록한 것으로, 2002년 사망한 유명한 오페라 연출가인 헤르베르트 베르니케가 재구성한 수정판을 담았다. 베르니케는 위해 원작의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작곡가의 다른 오페라 작품들인 '리날도', '오를란도', '톨로메오'에서 일부 장면들을 빌려왔다. 일종의 파스티치오(기존 작품들을 모아서 재구성한 오페라)라고 할 수 있으나, 원작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베르니케가 사망한지 2년이 지난 뒤에 리바이벌 된 공연이나, 연출은 물론 무대와 의상까지도 고인의 의도를 고스란히 재현하였다. 상징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로마 시대 전차, 2차 대전 때의 독일군복, 20세기 초의 탐험가 복장, 현대적인 슈트가 공존하는 상상력 풍부한 무대 연출이 바로크 오페라가 가지기 쉬운 단조로움을 말끔히 씻어낸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두 카운터테너 플라비오 올리베와 조르디 도메네크가 각각 체사레와 톨로메오로 열연하였다.



TDK DVWW-OPGCE



TDK DVWW-OPNAB

베르디 : 나부코

레오 누치, 나부코 / 마리아 굴레기나, 아비가엘 / 미로슬라브 드보르스키, 이스마엘레 / 마리나 도마센코, 페네나 / 파비오 루이지, 지휘 / 빈 슈타츠오퍼

21세기에 부활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대하서사시

1842년 라스칼라에서 초연된 '나부코'는 베르디를 일약 이탈리아의 국민 오페라 작곡가로 등극시킨 희대의 출세작이었다. 이전작의 참담한 실패로 의기소침해있었던 베르디는 이 작품의 큰 성공으로 재기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폭군 나부코(노부가넷살)의 압제 하에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적 순수성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치하에서 독립을 열망하던 이탈리아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가져왔고, 나아가 뜨거운 애국적 열정으로 승화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3막 2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탈리아인들의 독립의 의지를 담은 대표적인 저항가요로 이내 자리 잡았다. 2001년 빈 슈타츠오퍼에서의 공연을 담은 이 영상물은 구약시대의 영웅담을 현대적인 시각과 배경에서 재해석하였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바리톤인 레오 누치가 타이틀 롤을 노련하게 노래하였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가 강렬한 카리스마로 아비가일의 끝없는 야망을 연기하였다. 지순한 페네나 역을 맡은 미모의 메조소프라노 마리나 도마센코와 이스마엘레 역의 미로슬라브 드보르스키의 열창 또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저명한 연출가 귄터 크레머의 연출은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변화상을 섬세하게 그려내었고, 최근 빈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에 임명된 실력파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지휘로 일사불란하게 이 대작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TDK DVWW-OPLTLF

베르디 : 라트라비아타

파트리차 치오피, 비올레타 / 로베르토 사카, 알프레도 /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 제르몽 / 로린 마젤, 지휘 /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유서 깊은 초연무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큰 화제 이후 새롭게 재진된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오페라 극장. 2004년 11월 이 유서 깊은 극장에서 의미심장한 무대가 펼쳐졌다. 151년 전 바로 이 극장에서 초연되었던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무대에 오른 것이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파트리차 치오피가 타이틀 롤을 맡았고, 다재다능한 테너 로베르토 사카가 알프레도를, 우리나라에서도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은발의 러시아 베이스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가 제르몽을 노래하였다. 주역 세 가수의 뛰어난 노래와 거장 로린 마젤의 노련한 리드도 일품이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현재 천재적인 오페라 연출가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오페라 연출가 로버트 카슨의 도발적인 연출이다. 그는 오페라의 배경을 19세기 중엽 파리의 고급 사교계에서 욕정이 지배하는 현대의 환락가로 바꾸어 놓았다. 대담한 네글리제 사이로 드러나는 치오피의 늘씬한 몸매는 카슨이 의도하는 흥동가 여인의 이미지를 근사하게 뒷받침한다. 또한 2막 후반부의 파티는 엉망없이 환락가의 질펀한 스테이지쇼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몸을 사리지 않는 치오피의 뜨거운 열연과 눈부신 열창과 더불어 식사할 정도로 보편화된 이 오페라를 새로운 느낌으로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BBC DVD

BBC/Opus Arte
OA 0940 D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쇼팽

미켈란젤리의 역사적 콘서트 제 2탄

오푸스 아르테가 야심 찬 기획으로 선보이는 전설적인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미켈란젤리 리사이틀 DVD.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1탄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베토벤'에 이은 제 2탄이다. 1962년 투린 레코딩으로 그 희귀성이나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면 듣기 전부터 가슴이 설렌다. 쇼팽의 B플랫 단조 피아노 소나타와 발라드,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즈, 환상곡, 왈츠, 스케르초, 마주르카, 작자가 이르기까지 쇼팽의 주옥같은 음악들만 담았다. 화려한 기교, 정교한 컨트롤, 수정처럼 맑은 미켈란젤리의 음향을 만끽하게 한다. 1탄과 마찬가지로 리마스터링을 거친 음향은 상당히 깨끗하다. 특히 발라드와 마주르카에서 보여주는 깊고 넓고 다이내믹과 독특한 분위기의 타건은 압권이다.



BBC/Opus Arte
OA 0942 D(2DVDs)

모차르트 : 황제 티토의 자비

크리스토프 프레가디앙, 티토 /수잔 그레이엄, 세스토 / 한나 에스더 미누틸로, 안니오 / 캐서린 나글레스타트, 비텔리아 / 에카테리나 시우리나, 세르빌라 / 실뱅 캄벨링, 지휘 / 파리 국립 오페라

크리스토프 프레가디앙과 수잔 그레이엄이 들려주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세리아 '황제 티토의 자비'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해였던 1791년, 프라하에서 있었던 보헤미아의 왕 레오폴트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되었던 그의 마지막 오페라 세리아이다. 극적인 짜임새가 부족한 지극히 교훈적인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과 같은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나,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마술피리'와 같은 독일 징슈필에 비해 상대적인 인기가 부족한 작품이지만, 클라리넷을 적극 활용한 충실한 기악 파트와 작곡가 특유의 유려한 선율미로 가득한 주목할 작품임에 틀림없다. 수많은 고전 오페라들의 대본을 제공했던 피에트로 메타스타시오의 리브레토를 기초로 완성한 작품으로, 1세기 중후반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 티토(티투스: 재위 79-81년)와 관련된 일화를 다루었다. 오페라에서 티토는 자신을 살해하려 고한 이들을 용서하는 인물로 그려지나,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몇 달 동안 매일 5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성전을 폐허로 만든 장본인인 그가 실제 그러한 관용을 베풀었는지는 의문스럽다. 본 DVD는 2005년 5/6월 파리 가르니에궁에서 있었던 공연을 수록한 것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가수 두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는 값진 영상물이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사가이자 바로크 및 고전 레퍼토리에서 최고의 성과를 쌓아온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디앙이 타이틀 롤을 맡았고, 최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미국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이 황제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물인 세스토 역을 노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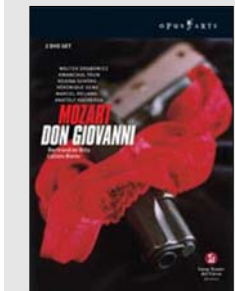
BBC/Opus Arte
OA 0943 D

클로드 비비에 : 오페라 <마르크 폴로의 꿈>

연주: 아스코 앙상블 / 쇤베르크 앙상블

요절한 캐나다 천재에 대한 집중조명

<마르크 폴로의 꿈>은 몬트리올 태생의 위대한 현대 음악가 클로드 비비에(1948-83)의 2부작 오페라다. 리게티가 동시대 프랑스계 작곡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곡가라고 극찬했던 클로드 비비에, 그는 코스모폴리탄적인 감각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풍부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현란한 성악과 오케스트라 작품을 쓰며 인간과 우주에 대한 탐험을 즐겼던 작곡가다. 비비에 자신의 의례적인 경험에서 얻어낸 작품의 곁길 같은 분위기는 무대감독인 피에르 오디가 정말 화려하게 재현해놓았다. 아스코 앙상블과 쇤베르크 앙상블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려주는 음악의 향연도 시종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오페라 외에, 요절한 이 천재 음악가의 삶과 작품에 대해 예리한 통찰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도 첨부했다.



BBC/Opus Arte
OA 0921 D

모차르트 - 돈 조반니

보이텍 드라보비치(돈 조반니) / 연광철(레포렐로) / 레지나 쇠르크(돈나 안나) / 베로니크 장(돈나 엘비라) / 마르셀 레이안스(돈 오타비오) / 아나톨리 코르체가 (기사장) / 마리스 마르틴스(체를리나) / 펠리페 보우(마제토) / 베르트랑 드 비이(지휘) /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연광철, 그가 노래하는 레포렐로를 만나다!!!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베이스 연광철, 현존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로니크 장, 슬라브 베이스의 적통을 잇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세계적인 베이스 아나톨리 코르체가가 한 무대에 올랐다. 본 영상물은 2002년 12월 바르셀로나의 유서 깊은 리세우 대극장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세계 최정상급 성악진들의 열연과 더불어 격렬한 논쟁을 낳았던 괴짜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의 파격적인 무대 연출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비에이토는 난봉꾼을 활동 무대를 21세기 대도시의 뒷골목으로 옮겨 놓았다. 흡사 과거 큰 화제를 낳았던 영국 연출가 피터 셀라스의 현대적인 프로덕션을 연상시키나, 돈나 안나를 겁탈하는 카섹스 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비에이토의 연출은 보다 강렬한 파격의 충격파를 만들어낸다. 지휘자 베르트랑 드 비이는 파격적인 비주얼과 달리 음악적으로는 절충주의적인 해석이 가미된 정통적인 모차르트를 지향하였다. 2채널 LPCM 스테레오와 5.1채널 DTS를 지원하며, 캐스트 갤러리와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BBC DVD

눈으로 확인하는 미켈란젤리의 예술세계



BBC/Opus Arte
OA 0939 D



BBC/Opus Arte
OA 0940 D



BBC/Opus Arte
OA 0941 D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드뷔시

눈으로도 확인하는 '완전무결함'

오푸스 아르테의 전설적인 미켈란젤리 투린 영상물 제 3탄! 이번에는 드뷔시다. 영상 1권, 2권, 어린이 세계를 온전하게 담았고, 전주곡 집 2권에 있는 두 곡도 실었는데 10번 '카노프', 5번 '히스가 무성한 황야'다. 예민하고 정교한 타건의 미켈란젤리의 도이체 그라모폰 음반은 이미 애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드뷔시 음반으로 사랑받은 지 오래다. 그의 드뷔시 음악의 특징이라면 한마디로 '완전무결함'인데, 듣기만 하면 그것을 이제 눈으로도 확인하게 되었다. 미켈란젤리의 제자들도 나온다. 1962년 RAI텔레비전 레코딩, 새로운 리마스터링을 거쳐 그의 순결한 음원은 한결 깨끗해졌다. 84분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쇼팽

미켈란젤리의 역사적 콘서트 제 2탄

오푸스 아르테가 야심 찬 기획으로 선보이는 전설적인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미켈란젤리 리사이틀 DVD.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1탄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베토벤'에 이은 제 2탄이다. 1962년 투린 레코딩으로 그 희귀성이나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면 듣기 전부터 가슴이 설렌다. 쇼팽의 B플랫 단조 피아노 소나타와 발라드,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즈, 환상곡, 왈츠, 스케르초, 마주르카, 자장가에 이르기까지 쇼팽의 주옥같은 음악들만 담았다. 화려한 기교, 정교한 컨트롤, 수정처럼 맑은 미켈란젤리의 음향을 만끽하게 한다. 1탄과 마찬가지로 리마스터링을 거친 음향은 상당히 깨끗하다. 특히 발라드와 마주르카에서 보여주는 깊고 넓고 다이내믹과 독특한 분위기의 타건은 압권이다.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베토벤 - 그 유명한 갈루피 소나타 연주하다!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베토벤 / 스카를라티 / 갈루피(1962년 이탈리아 투린 녹음)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너무도 귀중한 영상물. 알프레드 코르토로부터 '새로운 리스트의 탄생'이라는 격찬을 받았고, 아르헤리치와 폴리니라는 대 피아니스트를 키워냈던 피아노의 완벽주의자. 그의 이 진기한 기록물은 너무도 감동적이다. 20대 초반부터 평생에 걸친 관심으로 연주했던 베토벤의 소나타 Op.2의 No.3, 신기에 가까운 숲속로 정신의 승화를 들려주는 베토벤 후기 소나타 Op.111의 32번, 치밀한 분석으로 작품의 장점을 속속들이 파헤친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그리고 모든 애호가들이 가장 궁금해 할 레퍼토리인 갈루피의 영롱한 소나타가 실렸다. 미켈란젤리의 뛰어난 감각과 음악성 덕분에 갈루피의 소나타는 수정처럼 맑은 얼굴로 다가온다. 1962년 흑백영상이지만 디지털 리마스터링 음향은 상당히 좋다. 거장은 42세 때의 모습이다. 84분.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컨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 CD Quality (64K)

시험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COMING SOON!!



DVD I

Bruckner: Symphony No.4
Beethoven: Overture <Leonore 3>

DVD II

Schubert: Symphony No.8 & No.9

DVD III

Schubert: Symphony No.5
Brahms: Symphony No.1

DVD IV

Bruckner: Symphony No.7

DVWW-COWANDBOX2(4DVDs)

Günter Wand Edition Part II



표지사진 : 마리아 칼라스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2월호
통권 제 9호 발행 : 2006년 2월 24일
발행인 : 임용득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